朝鮮日報 朝刊
本紙朝夕刊十面
發行所 株式會社朝鮮日報社

社說
朝鮮人勞働者 渡航問題
—根本的對策樹立이必要—

一

數日前 大邱通信으로 去月一個月間에 慶北道內에서 日本內地로 渡航해가려다가 沮止된者가 三千二百八十八名이오, 正當한 理由가 잇다고보아서 證明을어더 渡航한者가 二千五十九名이라고 傳하엿다。이것은 單只 慶北一道의 一個月統計에 不過하거니와 其他 各道의 統計를綜合한다면 實로 莫大한 數爻에 達할것은 勿論이다。이것도 當局의 沮止로 渡航이 至難하다고 自制하고 手續을 밟지안흔者가 만흔때문이니 一方 滿洲方面에 移送되는者가 日益增加함에도 不拘하고 그數字에達한다는것을 아울러 생각하면 渡航沮止를 解除하는 때의 數字는 實로 想像以上의 數字에 達할것을 忘却할수가업다。

二

이 勞働者渡航問題가 朝鮮의 一大 社會問題로서 當局이 이 問題로 頭痛하는것도 昨今의일이 아니오 議會에서까지 種種 問題가되어오는터로 吾人이 熟知하는 事實이오 오늘에 始作된 별다른 新問題는 아니라할지나 當局이 極力沮止함에도不拘하고 그數는 減少되지 안코 또는 形式的沮止가 그들의 慾望을 꺽글수도업서서 實際的數에 잇서서는 日益增加하는 傾向을 考慮한다면 繼續 또는 等閑視할수업는 重大한 問題라고 아니할수업다。當局의 對策이 그根本原因을 探索하야 그것을 排除함으로서 그自然的減少를 圖하지 안코 渡航者의 形式的沮止에만 腐心하는 措處의 結果는 沮止策이 效果를 發生하는것이아니라 도로혀 그 慾望을 深化하는 反作用을하고말것이다。

三

勞働者라하여도 渡航者의 大多數가 農民인것은 再言할 必要가 업다。古今을 勿論하고 農民만큼 定着性이 만흔 백성이 업거든 이 定住하기를 조화하는 農民이 故土를 버리고 言語가 不通하고 風土와 習慣이 다른 異土에 移住하기를 누가 願하랴。그들이 移住를 願하는 것이 虛榮的慾望이 아님은 勿論 前者 日本內地의 繁榮을 말하던 大正年間과가티 就業의 容易와 勞働條件의 有利만을 夢想하는것도 아니다。朝鮮農村의 分解作用의 結果로 밧게되는 生活難의 脅威가 그들을 驅使하고잇다。그들은 樂土를 希求하는것이아니라 活地를 探求코저 함이다。卽 그것은 死線을 넘어서 生의 活路를 차즈려는 最終的인 希望이것이다。이것을 沮止한다는것은 單純한 渡航沮止가 아니라 그들을 活地에로 連結하는 希望의길을 斷絶하는 結果가 되는것이다。

四

그러나 吾人의 論이 決코 渡航制限도 아니오 無制限渡航許可를 主張함이 아님은 勿論이다。上述한바와가티 當局者는 渡航者를 沮止하는 機械的 措置에만 專事한 努力을 할뿐이오 그根本的對策에는 甚甚不足한感이 不無하다。어찌하야 當局은 農民이 流離케되는 原因을 究明하야 그原因을 排除하고 또는 渡航을 直接的으로 沮止할수잇슬만큼 實質的으로 農村對策과 社會施設에 注力하지 안는가。그들의 生活이 安定되고 前途가 保障되는 限 勸誘로라도 玄海灘을 건느기를 願하지안흘것이다。自作農의 創設도 조라 救窮事業도조라 其他 新規事業을 이르킴도조라、如何튼 그들로하여금 衣食住를 가지게 하고 生活權에對한 脅威를 排除하기만하면 問題는 自然的으로 消滅되고 말것이아니냐。

五

이와가티 이問題에對한 根本的對策을 樹立하지안코 그數字만 過大視하고 日本內地勞働者에게 及하는 影響其他만을重視하는나머지 臨時的이오 皮相的인 沮止萬能主義로써만 問題를 解決하려는것은 彌縫의 姑息策으로 治標하려는 糊塗的 便法이다。一方 滿洲移民計畫에 依한 解決策도 考究되고잇는모양이나 이것도 根本策이라고는 할수업는 表面的 또는 部分的對策에 不過하다。이것이 朝鮮 農村現狀이 反映한 反映인以上 그 全體的根本的水準性잇는 對策 樹立이 업시는 이問題의 解決은 바랄수업는것이니 이에對한 當局의 愼重考慮를 再三 促하는바이다。

伊公使抗議에對해 逆으로反省要求
에國奴隸賣買事實否定코應酬

【電通아디스아베바二十一日發】伊太利公使는 二十一日 本國政府의訓令에基하야 에디오피아政府에對하야 口頭로써 十八日의 에디오피아皇帝의演說은 무솔리니 伊太利首相을侮辱하는同時에 多分히 反伊的言辭가 包含되어잇다 라고 嚴重抗議하엿다 右에 對하야 에디오피아政府는 如左히 回答하야 도로혀 伊太利側의 에디오피아非難態度에 對하야 反省을 求한바 잇섯다

伊太利는 奴隸賣買로서 에디오피아非難의 材料로 삼으나 에디오피아는 奴隸賣買를 嚴重히 禁止하고잇다 現在 짐마州의 잘란、아브자빌氏와가튼이는 奴隸賣買에 干與한嫌疑로 罷免되어 抑留되어잇다

야 하일레실라시에 一世는二十日新聞記者團에對하야 强硬聲明을發表하엿다

에디오피아는 伊太利이든가他의國家이든가를 不問하고 그保護領乃至 委任統治領이 되기를 不肯하는바이다 에디오피아는에디오피아人의獨立主權의 自由를 確固히主張하야 何時에나 此를毁損함과 如한解決은 一切拒否한다 余는 에디오피아의 目的이正當함을 信한다 그리고에디오피아가 紛爭解決에對한 努力에關하야 萬全을期할것을 굿게確信한다 에디오피아의態度는 將來에도變함이업슬것이다 에디오피아는 바야흐로 우리를 侵略하려하는外敵의攻擊에對하야 全國力을擧하야 敢然行動할 覺悟를갓고잇다 이때에 當하야 各國은 에디오피아에 對한武器輸出을 禁止하고 祖國防衛를一層困難케하고잇다

그러나 我等은 켈록不戰條約調印國이 何等의 解決을發見하는데希望을부치고잇다 萬一 이것이不可能하게되면 不戰條約은 平和의 念佛化하는것이되거나 그러치안흐면 各國은自己의利益을爲하여는 이盟約을 함부로 無視하여도可能하는것을 世界에 表示하는것이될것이다 에디오피아는 에디오피아의 大義와 正義에依하야 抗爭은終局에잇서서 勝利를占하리라고 確信하는故로 國際聯盟의 決定에對하여도 滿腔의信賴를갓고 此를 期待하는바이다

他國의侵略排除 에皇帝再强調

【아디스아베바二十日發聯合】十九日 에디오피아 外相케타헤루이氏의 委任統治排擊聲明에對하

英國의緊急閣議
對에同武器輸出禁止의 解除與否를審議

【電通倫敦二十二日發】英國政府는二十二日午前十一時부터 首相官邸에서 볼드윈首相司會下에 緊急閣議를 開催하엿는데 右는伊에紛爭問題 特히 에디오피아政府의 要請을 容認하야 對에武器輸出禁止解除與否를 決定하기爲함이다

藏相、積極的으로 財政正常化力說
公債無制限發行可能論反駁
近日中팜풀렛트發行

【電通東京電話】高橋藏相은 明年度豫算編成을 압두고 벌서부터 軍事費의 增大說이 傳播되기때문에 自然增收를 一億圓程度로 豫想하나 藏相의 意圖하는 公債發行의 漸減方針은 容易하게實施할수업는 情勢에 處하여잇다 今後에잇서서 公債發行이 藏相의 意圖에 反하야 減少되지안을時에는 金融界에잇서 公債의 消化力을 阻害하야 現在의 景氣를 逆轉케할 危險이 잇슴으로 高橋藏相은 이러한見解에서 公債政策의 圓滿한 遂行을 圖하기爲하여는 藏相이抱懷하고잇는 財政方針을 國民으로하여금 徹底히 認識케하야 國民的支持下에 明年度豫算編成에 臨하는 外에는 다른策이 업다하야 財政의 正常化에 着手하려하고 잇다 卽藏相은 來二十六日葉山에 避暑함에 際하야 公債政策에 關하야 聲明을 發하야 世間에서 傳하는 公債無制限發行可能論과가튼 謬論에 對하야 反駁을加하는同時에 事務當局에 命하야 豫算과 公債의 現狀을 平易하게解說한 팜풀렛트를 發行하야 民衆에게 公債漸減政策의 必要한所以를 力說케하기로되엿는데 藏相의 財政正常化政策이 豫算編成期에 入함에따라 如何히進展될는지는 各方面의至大한注目을 끌고잇다

(寫眞은 高橋藏相)

皇王族三殿下 地方部隊御轉補

【電通東京電話】今回의 陸軍異動에서 皇王族三殿下께서도 地方部隊로 御轉補되시어 二十二日 左와如히 林陸相으로부터內命이잇섯다

參謀本部附 陸軍步兵大尉 秩父宮雍仁親王
任陸軍步兵少佐 補步兵第三十一聯隊附(弘前)
陸軍大學校兵學教官 陸軍騎兵中佐 賀陽宮恒憲王
補騎兵第十聯隊長(姬路)
教育總監部員 陸軍步兵中佐 李王垠
任陸軍步兵大佐 補步兵第五十九聯隊長(宇都宮)

各局의新規事業說明 大體로一段落
總監의査定方針、三段으로討議研究
總督府明年豫算査定

總督府明年度 歲出豫算査定方針에依하야 먼저今井田政務總監室에서 第一次査定을行하고 連日政務總監室에서 各局別로主管局長으로부터 新規事業豫算의 說明을行하야 二十二日까지에 官房各課、外局을 除하고 大體一段落을 告하엿다 그리고歲入部門은 財務局에서 整理集計豫算을 하고잇는데 數字的으로充分決定되지못하기때문에 新規事業財源의 見解가서지안코 따라總監의査定으로는 財源關係如何에不拘하고 實行할政策事業과 財源에 餘裕가잇스면 承認할수잇는事業等 大體査定方針을 三段으로分하야 討議硏究하고잇다 그리고總督府明年度豫算編成의 基調가될 一般會計外의 調整問題는 決局補給金減額 減債基金繰入增額、公債減額의三項目에 抵觸할터인데 中央政府特히 大藏省當局의意向이 充分判明되지안코 渡東中인宇垣總督의 歸京을기다려 中央當局의 具體的方針이 明示되리라고 觀測됨으로 本格的議出査定은 其後에되리라고 豫想된다

陸軍의大異動

【電通東京電話】來八月一日附로發令될 陸軍定期大異動은 二十二日 御裁可를어더 內命이發表되엿는데其主要한것은如左하다

▲待命
軍事參議官 陸軍大將 菱刈隆
同 松井石根

國防國策을一轉 教育訓練專力

【電通東京電話】來月一日에 發表될 陸軍定期大異動에 對한 一般의 豫想은 眞崎大將의 教育總監更迭을 前提로하고 所謂眞崎、荒木系派가 모도 待命또는 左遷될것이라고하는바 今後의陸軍은 從來의 態度를 根本的으로 一轉하야 荒木陸相時代의國策國防、或은 國防策强化보담도 專혀 軍隊의敎育練成으로 轉換할것이라고 觀測되다 그리고今回의 異動에對한 林陸相의 態度는 一、荒木系 一、眞崎系라고 하는 黨派的關係를 目的한것이 안이고 陸軍部內에서 不統一을 招來하기를 企圖하는데不過함으로 中央部의 要職에 最良派로 指目되는 人物이 續續就任하게 되어잇는 關係上異動後의 陸軍은 一元的統制下에 從來보다 以上의 한層 合法的 手段을 通하야 各部門과 各方面에 發揮하리라고 豫想되는바 그推移는크게注目된다

第二師團長 陸軍中將 秦眞次
待命被仰付(各通)
▲轉補
東京警備司令官陸軍大將 西義一
兼補東部防衛司令官
第十六師團長陸軍中將 蒲穆
參謀本部附被仰付
補兵器本廠長
造兵廠小倉工廠長 高橋貞夫
補騎兵監
○○○團長同 蓮沼蕃
中國駐屯軍司令官 梅津美治郎
補第二師團長
第十六師團附 同 澁谷伊之彦
補第十六師團長
○○○司令官 同 佐藤三郎
參謀本部被仰付
騎兵監 同 宇佐美興屋
補第七師團長
陸軍技術本部第三部長 同 村井勝
補造兵廠小倉工廠長
同 河上恭輔
補○○○團長
同 ○○○司令官 多田駿
補中國駐屯軍司令官
憲兵學校主事 同 桑崇明
步兵第九旅團長 同 萩洲立兵
補騎兵第九旅團長
▲進級
少將 蓮沼蕃
關東憲兵隊司令官少將岩佐祿郎
技術本部第三部長少將村井勝
運輸部長(宇品)少將 松田巻平
第四師團司令部附(大阪)
少將 平松英雄
關東軍○○團長少將 川岸文三郎
旅順要塞司令官少將 田中稔
整備局長少將 山岡重厚
近衛步兵第一旅團長
少將 高田友助
砲工學校長少將 永持源次
所澤飛行學校長少將 德川好敏
科學研究所第一部長少將川上善弘
佐世保要塞司令官少將島省三
騎兵第二旅團長(習志野)少將 笠井平十郎
重砲兵學校長少將 河村恭輔
東京灣要塞司令官少將 弘岡好忠
任陸軍中將(各通)

總督府辭令 (以下略)
二十二日附發令

▲府檢事 佐佐木日出男 任府判事(四等) 補京城覆審判事 ▲海州地方法院長 原田學 補公州地方法院長 ▲平壤覆審部長 矢本正平 補海州地方法院長 ▲大邱覆審部長 鏡一以 補平壤覆審部長 ▲京城覆審部長 松本茂 補大邱覆審部長 ▲平壤地方部長 藤林英 補京城覆審部長 ▲平壤覆審判事 佐藤誠一 補平壤地方部長 ▲京城覆審判事 柳原幸雄 補平壤覆審判事 ▲京城地方判事 高畑一郎 補京城覆審判事 ▲全州地方判事 高木滿 補京城地方判事 ▲釜山地方部長 藤本香藤 補釜山地方部長 ▲全州地方部長 荒卷昌之 補釜山地方部長 ▲釜山地方部長 全州地方部長 上野義淸 補全州地方部長 ▲群山支廳判事 有澤作治 補大邱地方判事 ▲京城地方判事 津村浩司 命補大邱地方判事豫審掛 ▲同 岩島肇 命豫審掛 ▲大田支廳判事 武藤將之助 命補馬山支廳判事 ▲淸州支廳判事 津田猛哉 補大田支廳判事右同 ▲金泉支廳判事 宮內石直 補淸州支廳判事 右同 ▲京城地方判事 北條新次郎 補金泉支廳判事 ▲淸津地方判事 金斗一 補右同 ▲春川支廳判事 近藤健藏 命補忠州支廳判事豫審掛 ▲木浦支廳判事 渡邊嗣衞 補春川支廳判事 ▲晉州支廳判事 天野春吉 補木浦支廳判事 右同 ▲原州支廳判事 岩山德兵衞 補晉州支廳判事 ▲瑞興支廳判事 杉江吉三郎 補原州支廳判事 ▲平壤地方判事 久保田源一 命補瑞興支廳判事豫審掛 ▲公州地方判事 豊島正己 補大邱地方判事 ▲京城覆審判事 吳完洙 補大邱覆審判事 ▲大邱覆審判事 金準枰 補京城覆審判事 ▲大邱地方豫備判事 長井伸之介 補大邱地方判事 ▲平壤地方 同 曾生藤三 補平壤地方判事 ▲釜山地方 同 中野虎雄 補釜山地方判事 ▲京城地方 同 鎌田叶 ▲同 同 黑川和直 補京城地方判事(各通) ▲大邱地方 同 三好昇 補公州地方判事 ▲光州地方 同 田中壽夫 補光州地方判事 ▲海州地方 同 金又說 補海州地方判事 ▲全州地方 同 金光根 補全州地方判事 ▲新義州地方同 中津市五郎 補新義州地方判事 ▲大邱覆審檢事 板野孝一 補平壤覆審檢事 ▲公州地方檢事正 柳原茂 補大邱覆審檢事 ▲淸津地方檢事正 橋本恒五郎 補全州地方檢事正 ▲釜山地方檢事 元橋曉太郎 補淸津地方檢事正 ▲光州地方檢事 松前謙助 補釜山地方檢事 ▲京城覆審檢事 兼京城地方檢事 伊等憲郞 補光州地方檢事 ▲京城地方仁川支廳檢事 香川愿 補京城覆審檢事 ▲大邱地方金泉支廳檢事 森貢吉 補京城地方仁川支廳檢事 ▲公州地方洪城支廳檢事 依田克巳 補京城地方檢事 ▲咸興地方江陵支廳檢事 鈴木康 補全州地方南原支廳檢事 ▲釜山地方居昌支廳檢事 井原强助 補咸興地方江陵支廳檢事 ▲全州地方井邑支廳檢事 谷口諸十郎 補釜山地方居昌支廳檢事 ▲大邱地方在勤豫備檢事 靜永世策 補大邱地方檢事 ▲平壤地方在勤豫備檢事 杉本壽一 補平壤地方檢事 ▲釜山地方在勤同 行森孚 補全州地方井邑支廳檢事 ▲新義州地方在勤同 坂本一郎 補新義州地方檢事 ▲全州地方在勤同 井上義明 補公州地方洪城支廳檢事 ▲咸興地方在勤同 長井省吾 補咸興地方檢事 ▲公州地方院長本府判事 多田吉鐵 退職을命함 ▲京城覆審檢事 橫田義太郎 依願免本官 ▲(平壤)裁判所通譯官 岡原七郎 補大邱覆審通譯官 ▲(大邱)同 交野忠雄 補平壤覆審通譯官 ▲稅關鑑查官補兼稅關事務官補 奧田直惠 任總督府稅關鑑查官(七等) ▲釜山稅關在勤을命함 ▲總督府鐵道局副參事 吉川協 總督府稅關鑑查官 井上百千 ▲(京中)朝鮮公立中學校教諭 木宮國助 依願免本官(各通)

人事·集會

▲金東元氏(本社顧問)今朝入京 人事次來社光化門호텔에投宿
▲朴相駿氏(中樞院參議)同上常盤旅館投宿

夕刊後市況 廿二日

◆大阪短期◆

	後引	高值	低值
帝人新	六〇六〇	六〇六〇	六〇五〇
鋼管	九五五〇	九五九〇	九五三〇
日鐵	九九四〇	九九三〇	九八三〇

◆大阪短期氣配◆

大新	八三六〇(一〇低)
鐘新	一一五〇〇(不變)
日產	六九一〇〇(一〇低)
東新	一三七二〇(二〇低)

◆橫濱生糸後引◆
當限六七〇〇 先限六一六〇〇

◆福井人絹後引◆
當限 五四九〇 先限 五五七〇

北極圈突破飛行
空界未曾有의大壯擧
蘇政府準備整齊

【莫斯科二十一日發聯合】蘇聯政府는 드듸어 今夏를 期하야 北極圈無着陸飛行의 壯途를 決行하기로되엿는바 準備萬端은 漸次 整頓되어 지금 北極圈의 天候好轉을 기다리게되엇다 이壯途에 使用될 飛行機는 巨人機 「막심·고르키」號의 設計者 쯔파로프氏의 獨特한 考案으로 單葉低翼의 怪物인데 兩翼은 자못 길고 胴體는 매우 짧고 灰色칠을 한것이다 發着用車輪은 兩翼에 裝置되어잇고 無電裝置도 完全히 設備되어잇다 이怪物機를 操縱하는이는 空中의 英雄 레바넵스키—氏로 서 天候가 回復되는대로 莫斯科中央飛行場을 出發하야 北緯四十度線에 沿하야 北上하야 北極圈에 到達한後 西經百二十度線에 臨하야 南下하야 加奈陀北方의 포토심프손에 出하야 太平洋上空을 經하야 海岸線을 따라 桑港에 到着할豫定이다 코스全長 六千二百二十哩이라고 하는 空前의 飛行이 되는데 蘇聯政府에서는 이壯擧로 學界多年의 懸案인 極地氣象觀測完成計劃을 進行하고 東西兩半球를 連結하는 長距離航路를 만들方針이라고한다

太沽를中心으로 大築港計畫
日中合辦具體案도進涉

【電通天津十九日發】天津市長程克氏는 就任以來 頗히 疲弊한 河北省의 緊急復興策에 腐心하고 塘沽、天津間의·自動車道路 建設을 第一着手로 또太沽、塘沽、天津을 一圓으로한 一大都市計畫을 企圖하고잇서 이準備를 進行하고잇는데 다시 日本民間實業家와 中國側當局間에 北中의 安定에基한 奧地의 經濟開發促進의 先驅的條件으로 太沽를 中心으로한 築港計劃이目下 相當히 具體的으로 進捗하고잇다 右는 總工費 一億圓에 達하는 자못 尨大한 計劃으로 이半額의 五千萬圓及 現物(建設材料)를 日本側이 出資하야 日中合辦의形式으로하야 日中經濟提携의 基礎工作이 成立되면 北中入口太沽로하여금 靑島、胡盧島의繁榮을빼앗는 開港이되게하야 黃河以北의 現河北의物資를 呑吐할수잇는 一大港灣施設의完成을期하려는것으로 이것이實現되는때에는 北中의上海로將來北中經濟動脈의心臟이 될것이라고多大한期待를 걸고잇다

宇垣總督吹込

【東京電話聯合】渡東以來各大臣과의 會見과 朝野名士의 再訪問으로 奔忙한宇垣總督은 래코드로서 一般民衆에게 朝鮮에對한 認識을 깁게하고십다고 二十二日午前十一時四十分 東拓빌딩에잇는 콜럼비아吹込場을訪問하고 마이크앞에서서 前後三回의 試驗을行한後 겨우調子를마추게 되어 자라는朝鮮이라는 題目下에 三分間 朝鮮의 實情講演을 吹込하고 歸邸하엿다

一事一言
第七心境
長白山人

佛教에서는 衆生이 生死로 輪廻하는 길이 여섯이라고하야 이것을 六趣라고도 하고 六道라고도 한다。나즌데서부터 치면 餓鬼道、畜生道、地獄道、阿修羅道、人道、天道의 順序다。餓鬼道란 食慾의 飢渴이 찬곳이어서 배는 크고 목은 가늘어 아모리 먹어도 배부르지아니한 곳이오 畜生道라는것은 오직 性慾에 목마른 곳이오 地獄道라는 곳은 憤怒、嫉妬等 愛慾의 砕責뿐에 지글지글 끌는 곳이오 阿修羅道 또는 修羅道는 自慢、野心、爭鬪로 피를 흘리는데요 人道라는 곳은 向上하라는 努力 卽 修養의 고장이오 天道라는 곳은 五慾의 快樂이 늘 比한 곳이라는것이다。

우리는 宗教的意味를 떠나서 이 六道를 우리의 地上의 一生에 마초아볼수가 잇다。財物에對한 貪心이 熾烈할 때에 그것은 餓鬼的心境이오 性慾은 畜生的이오 서로 사랑하네 미워하네 원망하네 시기하네 하는것은 地獄的이오 自慢이 라든가 憤慨라든가 征服慾、權勢慾으로 서로 싸호는것은 阿修羅的이오 高潔한 理想을 세우고 反省、精進하는것은 人的이오 有時乎 사랑하는 者가 서로만나고 所願이 일우고 身心이 調和하야 滿足의 快樂을 느길때에는 그것이 天道的이라 할것이다。우리는 우리 이웃에 或은 餓鬼的인者、或은 地獄住民인者、或은 精明히 阿修羅的인者、乃至 極히 드물게는 天道的인者를 보거니와 우리 一個人의 一生에도、一日에도、或은 餓鬼的 乃至天道的瞬間을 가지는것이니 이렇다면 이 世上에는 六道衆生이 混然雜然하게 살고 가튼 個人으로도 一生에、或은 날마다、時마다 六道에 無常出入을 하고잇다 할것이다。善한 社會일사록 人、天이 만흘것이오 善한 個人일사록 人、天的瞬間이 만켓지마는 地獄道以下의 이른바 三惡道에서만 浮沈하는듯한 사람이 多數인것도 事實인듯하다。

그런데 우리는 關說 이 六道以上에 超越하는 心境을 經驗할 때가 잇다。모든 愛慾과 苦惱를 벗어나 向上하라는 努力感이나 滿足의 快樂感까지도 解脫하고 無爲淸淨에 몸이 뜬듯한 心境、한 걸음 더 나아가면 自己의 存在까지도 이저버리는 寂滅的인 心境을 經驗한다。이것을 第七 心境이라고나 이를지올까。이것이 涅槃의 心境이라는것일는지 모르지마는 우리는 누구나 最後의 安息處로 마음의 한편구석에라도 이러한 心境을 하나 두고서 사랑삼아、別莊삼아 隨意로 出入하고 십다。

넘어도 俗스럽고 넘어도 騷騷한 心境에서만 우리는 定住하는것이 아닌가。

文化と世界觀 田中耕太郎
滔々たる反文化的行爲と思想の一切を文化的に審判さるべきか?文化と科學・國家・政治の根本基調より解剖し熱烈なる批判を下せる六十枚の雄編!!

北遊記 —清新にして宗の北遊記の逸品— 正宗白鳥
向陵の想出 —俊才の一高時代の回想— 森田草平
暴力の倫理性 —法と暴力との二大事實を社會的に如何に批判するか?— 新明正道
コミンテルンの近情・ 成田精雄
自由主義と全體主義 杉森孝次郎
北支事變の後に來るもの・ 尾崎秀實
世界石油戰の現段階 脇村義太郎
政界暗流の歸趨 馬場恒吾
原敬と高橋是清 小泉三申
將棋上達法 —棋界の鬼才が說く要諦!!— 木村義雄
裸の醫學 本村儀作
牧逸馬氏追憶 大衆作家としての牧氏・千葉龜雄 少年時代の牧逸馬氏・伊藤次五郎 追憶・長谷川淑夫
市川左團次 自敍傳
讀書雜記 小泉信三

中央公論 八月號 銷夏讀物號 十九日發賣 定價八十錢 東京丸ビル 中央公論社

探偵小說 人魚謎お岩殺し 小栗虫太郎 —鬼才小栗氏八十枚の快作!鋭尖な新手法と鬼氣の迫眞!正に無變の境地!!
江戶奇談 街談源內 十一谷義三郎 —奇人鳩溪の全貌躍動、筆力縱橫奇才縱橫、氏にして成す卓拔の讀物!!
異國情話 國境樵歌 頴田島一二郎 —筆尖奔放、妖彩赫灼、シベリアの曠野に燃ゆる情火のむしろ寂しき佳品!!
維新小說 神戶異變 長谷川伸 —維新物の新スタイル、考證と興趣と織成す未拓讀物として推す!

夏の夜の犯罪 神に背を向けた男・甲賀三郎 若き二人の女の死・尾後貫莊太郎 夏の夜の犯罪・濱尾四郎
中山晉平自譜・中山晉平
住宅經濟學・野田豐
滿洲國繪の旅・藤田嗣治
東西野球ファンの氣質・麻生豐
短歌・福田榮一
夏日小閑 岡田首相・藤原銀次郎 廣田外相・大內兵衞 橫山大觀・島崎藤村 深井英五……
支那讀美論・村上知行
街の人物評論 宰生犀星 河合榮治郎 中島知久平 赤木朝治
(卷頭言) 政府の經濟思想
金銀狂想曲 渡邊萬次郎
法律相談・末弘嚴太郎
反產運動の激化 小岩井淨
陸軍の新動向 岩淵辰雄
最新醫學に於ける處女性の抹殺 太田武夫
疏菜圖……安井曾太郎
娼婦の手紙 宇野千代
北海流人 下村千秋
家出人 井伏鱒二
標本 藤澤桓夫
國防と財政 小川鄉太郎

麻浦水害畫報

우로부터=방축의피난민、가장을들고 피난중의광경、침수된전차선로、배로피난하는광경

漢江刻刻으로增水
麻浦浸水五百戶
增水十米突破를念慮하여
沿岸一帶愼重警戒

이십일부터 쏘다지는호우로 중부조선일대는 곳곳마다 물소동이 이러나 교통이두절되고 인명과 가옥의 피해가 적지안흔가운데 한강의 증수가 각각심하야 경성인천(京城、仁川)지방의 피해가 우심한중이십이일밤열시에이르러 한강의증수는 팔『메돌』을 돌파하여 오히려 증수중이고 룡산원정(元町)의욱천(旭川)은 십메돌을 돌파하야 각동리의 피해가 적지안타 그중에서도 마포방면의침수가 가장심하여 마포 동막일대는 완연히바다와가티 물에 싸이엇는데 밤구시까지의증수는 구미돌삼십에달하여 작일석간보도이후로 약한미돌이나 더증수를보아 침수가옥도 칠십여호가 더늘어서 전부 오백사십여호의침수를보앗다

三千名避難民
麻浦普校收容
木船等을準備하고警戒中
龍山署員도總出動

마포일대의 침수가옥오백여호의 리재민 약삼천명은 폭주하는비와 각각으로증수하는 물과싸우며의지할곳을차저 이리저리 몰려단이는데 당국에서는 경긔도보안과장(保安課長)룡산서장(龍山署長)이하 각관계관청에서 협장을 시작하는동시에리재민의 구조와 피난을위하야각지점에 응원대와 소방대를 출동시켜십여척(木船)에 갈나타고 인명의구조를 하는중인데 마포공보교(麻浦公普校)를 림시피난소를만들어수속리재민을 수용하는중이다

龍山管內浸水
廿二日午後八時現在

	床上浸水	床下浸水
麻浦	六七	二三
桃花洞	三七	一七
元町四丁目	二〇	一二
土亭里	三五	一三
東幕上里	二	二
新水鐵里	二	三
新井里	二	二
加中里	一	一
倉前里	一	二
山手町	七	三
漢江里	一	一
東氷庫里	一	二
西氷庫里	一	一
東幕下里	五	二
玄石里	一五五	一
計	三六一	一三一

漢江增水八米一〇
밤十一時現在의人道橋水位
새벽까지는多少增水

이십일전부터 쏘다지는 호우로 한강(漢江)은 그상류지방인 가평(加平)려주(驪州)방면으로부터 몰려내려오는 물에각각으로 증수되야 한시간에 일메돌이상식수위는 올려가서 오후한시현재수위는 한강본류가 륙메돌、룡산、욱천(旭川)이칠메돌구십약온것이 밤열한시에는한강본류가 팔메돌이십 욱천이 구메돌십에 달하야 점점증수되고 잇는데 이십삼일 새벽까지 물은 계속하야 불을모양이나 증수되는 속도는 오후부터완만하야 비상경계선인 십메돌이상에는 달하지안하리라고 보고잇스나 밤에도비가 오고잇슴으로 아직 예측하기는 어렵다하야만약십메돌을 돌파하면 비상경계를 개시하야 방수단(防水團)을 총출동식힐예정으로 소관룡산경찰서에서는 본전(本田)서장이하전원이 서에모히여 만반준비를다하고잇다

市內被害一束

이십이일 오후다섯시이후에 판

纛島增水로
汽動車不通

명된 경성부내의 이번수해는청운동(淸雲洞)오십칠번지의 삼호 경성전긔회사 경영지의돌담열세간이 도괴되야 손해가 약삼백원이라하며 이외에 서대문서관내에는 언덕 문어진것이두곳이고 도로파손된것이 다섯곳이며 토담문어진곳이 한곳이다

이십이일정오경 시외뚝섬(纛島)한강(漢江)상류는 륙미돌팔십으로증수되고 살고지교(箭串橋)부근은 이메돌이상증수되여 자동차、긔동차등교통이 두절되엿스며 도선으로써 겨우련락하는중인데 이에따라 동대문과 뚝섬간의 긔동차운전은 중지되고 말엇다

杏堂里十戶浸水

한강증수로인한 동대문경찰서관내피해는 이십이일 오후네시경한지면행당리(杏堂里)에 상하친수가옥이 십호에달하엿슬뿐으로뚝도(纛島)는 각각으로 증수되야 이십이일 밤열시경에는 수위팔메돌가량으로 아직친수가옥은별로업스나 마일을 념려하야소방대는 총출동경계중이다

屋蓋까지浸水
元町에七戶

시내원정(元町)사정목은 시가가 물에완전히 잠겨이십이일오후구시현재로집웅(屋蓋)까지 물에덥힌가옥이칠호에 달하고상상친수(床上浸水)이십팔호상하친수(床下浸水)륙십륙호가 더증가되엿는데 아즉도호우가폭주하는중임으로오늘밤증수가 어느정도까지 오를는지 자못념녀되다

十米突破하면
非常時警笛
各處避難所도設定하고
萬般의警備를擴充

한강상류인 충북충주(忠州)려주(驪州)춘천(春川)지방은 아즉도강우가 계속중임으로 한강은의연 증수할것으로 예상되는바만약 현재이상으로 물이불어서한강증수십『메돌』을 넘는경우에는전긔회사(電氣會社)철도국(鐵道局)에 교섭하야 긔적(汽笛)을 울니고 경종을 란타하야 비상출동을 할것으로 준비를진행중인데 마포보통학교이외의피난장소로서는다음과가치예정하엿다한다

▲朝鮮人避難所 新舊龍山方面은製絲會社 孝昌普通學校 ▲日本內地人避難所 新龍山方面은 東本願寺 大念寺 龍光寺 新龍山金融組合 舊龍山方面은 舊龍山金融組合瑞龍寺西本願寺 ▲其外豫備避難所는 三坂小學校第二高等女學校 麻浦青年會館 桃花劇場

今日부터개인다
昨夜京城測候所觀測

이십이일저녁여섯시 경성측후소의 관측에 의하면 이십삼일의 천후는 비가 개일 모양이다 즉 중부조선 서해안에 잇는저기압은 세력이 아주 쇠퇴하여 저기압이랄 정도에 밋치지못하게 되엿스나 아직은 긔류가 불안정한 상태에잇고 일방고기압은 태평양 해상에서부터 일본해를 거처 조선반도에 련하여 잇스며 만주도 개이어 잇슴으로 이십삼일부터는 들러이다 또 대만(臺灣)븍부 해상에 잇서서 북진중이든태풍(颱風)도 서북방으로 방향을 변하여 중국내륙으로들어 가고 잇슴으로 태풍의 영향을 바듣 렴려도 업는듯하야 얼마동안은 큰비가 업슬모양이다 또 이십이일 오전여섯시부터 오후여섯시까지의 우량은 다음과갓다

雄基七미리 中江鎭八 元山二 江陵六五 京城一六 仁川五 全州五

九十八人夫歸還

【鎭南浦】 지난십삼일진남포일본광업제련소(鎭南浦日本鑛業製錬所) 직공일천 이백여명이 대파업을이르킨 사건에대하야 동제련소의방계(傍系)인 황주군구성면룡두리(黃州郡九聖面龍頭里)석회산(石灰山)에서 작업하든인부구십팔명은 지난십오일 팔번환(八幡丸)으로 이송하여가드니 동파업사건은 그후해결의 서광이 뵈여사건은 일단락을 고하게되엿슴으로 지난이십일 전부겸이포항에상륙귀환하얏다한다

晩時의嘆은잇스나
湖南地方은喜雨
羅州、務安地方에는아주안내리어
光州地方卅미리內外

【光州支局電話】 때가이미늣기는 하엿스나 단비는이십일일 부터 오기시작하야 이십이일 까지계속하야 와서전지가 되려는전라남도의 토지를윤택하게 축이엿다 담양(潭陽)군에는 삼십구『미리』엿고 곡성(谷城)군에는삼십오미리엿고 광주에는 이십삼『미리』엿고 기타에도 오기는하엿스나 라주(羅州)와 무안(務安)일대에는 한방울도 아니와다고한다 그리고기타 다른곳에도 갑작만 드리게하는데 아즉도 구름이모여들고 소나기가 오는것을보면 압흐로 더올것도하여저우이라고관측하게한다

楊州署管內서
二名이溺死
京畿各地交通網混亂

경긔도 일반피해상황은 고양군숭인면돈암리(高陽郡崇仁面敦岩里)삼선평(三仙坪)무넘기 다리가 파괴되야 차마교통이 금지되엿고 양평(楊平)서관내에는 동군룡문면광탄리(龍門面廣灘里)압내에서 다리를 건느다가 리와함께 류실되야 행방불명된사람이 두명이나 잇섯고 려주(驪州)경찰서관내일원에는 주요한 교통이 모다 끈첫고 양주(楊州)서관내에는 류실가옥이 사호이고 교량 침수가옥이삼십팔호이며 교량의 파손된것이일개소이고 제방의 붕궤된것이륙개소이고 리천(利川)에는 백사면(栢沙面)현방리와 리천면중리와 장호원안성(長湖院安城)사이의 자동차교통이 끈어젓다 한다

潮水가티밀어
二百餘戶浸水
江華島의水害甚大

【江華支局電話】 강화(江華)지방에는이십일에 일백칠십칠『미리』의 이십일일에 이백삼십일『미리』의 이십일일오후에는 때마츰조수(潮水)와합처강화 호우가폭주하야 이백여호가 침수되엿스며 읍내로부터각면으로 통행하는상등도로는 곳곳에류실되엿고 만허교통이두절되엿다 강화군송해면하도리(松海面下道里)에사는 박세민(朴世民)이라는 로인은 이십일일오후네시경에 그곳 하도리보(河道里洑)뚝으로가다가탁류에 휩쓸리여 떠내려가죽사하엿고강화공립보통학교작업장은전부침수 파괴되엿스며강화와경성을련락하는자동차는 김포(金浦)송화리(松華里)압다리가류실되야 이십일일에 경성을떠나 강화로가든자동차승객이십여명은 겨우도보로련락한더로 우편물도 몃시간식연착되는 현상이다 그리고불은면 삼성리(佛恩面三成里)에잇는 토금(土金)광에는 광부가약일천삼백명가량이 일을하고잇는데 그곳에주택은 림시로 건축한『빠락』이라 비가새서 그곳주민 일천삼백여명은 모다 길거리에서 방황하며 금구뎅이는 모다미여서 다시전부파내야 하게되엿다 그리고 강화도와 인천(仁川)을 련락하는 자동차와 밋 서도면(西島面)으로 가는선편도 끈허저서교통이완전히두절된상태이다

今日이中伏
明日은大暑

오늘이중복(中伏)이다。 삼복도 이제는 반을보내스며 년중에 제일더웁다는대서(大暑)도 명일로 박두하엿스니소란하고 지리한 금년여름도고개를넘어서는편이다

金浦에도大雨
江華行車不通

【金浦支局電話】 이십일일이래로 오든 호우는 이십이일오전열시까지에 우량삼백팔십팔미리를 보여 수년래처음의 큰호우엿다 까닭에 경성강화(江華)간의삼등도로는 양서면 방화리(陽西面 傍花里)와 월곳면군하리(月串面郡下里)의 이개소에 파손개소를 보여 정괴자동차는 불통이되엿고 각수리조합 연안지방의 전답침수된것이 이천정보에나 달하며거긔짤은피해도만흘모양이다

運動競技欄

京城↓新京間마라손
金、朴、鄭三君
今朝、本社압廣場을出發

京城으로부터滿洲新京까지 一千七十五킬로(二千六百里)의머나먼길을 다리두발로뛰어 到達하려는長距離마라손의計劃을세운 金華榮(二二)朴永善(二五)鄭載權(二三)三君은 鄭里인 金、鄭兩人과 昨夜入京하얏는데 一行은今二十三日午前十時 太平通本社압廣場을 떠나 目的地滿洲新京으로 向할터이다 一行中의 金華榮君은 再昨年六七月에 東京↓新義州間을走破한 鄭君도일즉부터 長距離走에 身長六尺餘의 鐵脚으로서 朴君과 經驗잇는猛將들이라 씩씩한 발자옥으로 滿洲各地를通過할때마다 在留同胞들로하여금 歡喜케할것으로豫想되는다 一行의 日程은다음과갓다 【寫眞은 左로부터 金華榮、朴永善、鄭載權三君】

▲京城—開城(廿三日) ▲開城—南川(廿四日) ▲南川—沙里院(廿五日) ▲沙里院—平壤(廿六日) ▲平壤—嶺美(廿七日) ▲嶺美—宣川(廿八日) ▲宣川—新義州(廿九日) ▲新義州—鳳凰城(卅日) ▲鳳凰城—草河口(卅一日) ▲草河口—本溪湖(八月一日) ▲本溪湖—奉天(同二日) ▲奉天—鐵嶺(同三日) ▲鐵嶺—開原(同四日) ▲開原—四平街(同五日) ▲四平街—公州嶺(同六日) ▲公州嶺—新京(同七日)

中等陸上大會
廿七、八兩日間

朝鮮學生陸上競技聯盟主催의 第二回 全朝鮮中等學校陸上競技選手權大會는 來七月二十七日、(午後一時)、二十八日(午後零時半)의兩日間 京城運動場에서 開催할터이라한다

普專、養正合宿과
럭비講習會
李鍾琬氏指導로

夏期를마지하야『럭비』蹴球技!이것을 斯界에잇서서 現在보다 더욱理解와認識을 깁게할主旨로써 第三回 夏期럭비 講習會를 普專과 養正高普監督인 李鍾琬氏가 普專럭비部와 養正高普럭비部가함께 鐵原에서合宿練習할時機에서 八月十五日로부터 向一週間 京城과 地方의初、中等學校의 敎員과 團體를 代表하는 責任者에限하야서만『럭비』에對한 理論과 實際를 講習하리라는바 希望者는 八月五日까지 市內長沙洞一五六番地 李鍾琬氏에게 書面으로 申請하되 學校名或은 團體名을 明記하야 주기바란다 講習料는無料이요食費는特히 普專과 養正合宿所에서實費提供하리라한다

基靑學校籠球部
西朝鮮遠征

朝鮮中央基督敎靑年會學校 籠球部에서는 夏期休暇를利用하야 籠球技를練磨코저 西部朝鮮을歷訪轉戰하리라는바 出發期日은二十二日午前八時이며 試合地는 開城은 二十二、三兩日間 沙里院에서는 二十三、四兩日間 平壤은二十五、六兩日間인데 陣容은다음과갓다

▲監督金明德 ▲코-치李惠澤 ▲主將李泰燮 ▲選手權重璘 徐廷鈺 金俊泰 金仁源 李應斌 李鍾植 宋永晋 崔鉉敏 李鍾鉉

全日本對全京城庭球
八月三、四日로

全日本軟式庭球選拔軍對全京城庭球戰은 二十七、八兩日에 京城運動場코-트에서 行할豫定이든바 全日本軍의 事情에依하야 來八月三、四日로延期케되엿다한다

中等野球豫選

大朝主催의 中等校野球朝鮮第一次豫選은 二十二日에 一齊히開幕할豫定이든바 降雨로因하야 中部、湖南、南部는 順延되고 西北部만은 豫定과가티 二十二日午前九時부터 平壤公設運動場에서 第一回戰을行한바 이날의戰績은다음과갓다

平高 17A 沙農 7

沙里院農校對平壤高普戰은 午前九時二十分부터 沙里先攻으로開始한바 七回에『콜드께임』되여結局十七A對七로平高大勝

(沙農)	0	5	0	2	0	0	0	7
(平高)	6	3	3	1	2	2	A	17A

新商 7A 平商 3

平壤商業對新義州商業戰은 午前十二時三十分부터 平商先攻으로開始한바 結局七對三으로新商勝

(平商)	3	0	0	0	0	0	0	0	3
(新商)	4	0	0	0	1	0	2	A	7A

鎭商 5 光成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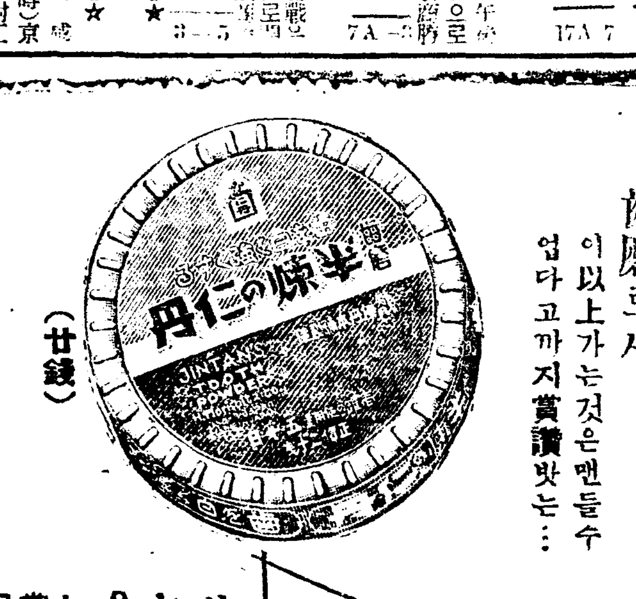
鎭南浦商工校對平壤光成高普戰은 同午後二時부터 鎭商先攻으로開始한바 結局五對三으로 鎭商勝

(鎭商)	0	2	0	0	2	0	0	0	1	5
(光成)	0	1	0	1	0	0	0	1	0	3

今日의運動

▲野球=中等野球豫選第一日 咸興商業對京城工業(午後九時)京師對元山中學(正午)、龍中對仁川商業(午後二時)京城運動場에서(雨天順延)

67



齒磨로서 이以上가는것은 맨들수 업다고까지 賞讚밧는…

專賣特許 半錬の仁丹齒磨 (廿錢)

보내신분은 누구시든지마치누훔 융한賞品

大賞品 秩父銘仙夜具、金側時計、絹紗訪問服、미싱、机上셋트、銘仙、洋傘、佛蘭西人形其他

應募紙 半錬仁丹齒磨中丸厚紙、袋은外函紛은外袋2枚부라시ㅣ는外函 仁丹石鹼은外包紙2

文官受驗

8月 滋賀·朝鮮普文受驗 必勝準備徹底的指導

▼滋賀·朝鮮普文受驗必勝の要諦 ▼全國主要地より大津迄の交通費調 ▼大津市受驗者宿料調 ▼短期普文受驗案內手續のとり方 準備 合格 先輩 心得 ▼普文各科模範答案 ▼最近內地普通文官試驗問題集 ▼其他受驗者必讀の記事滿載

八月號 全國書店にて發賣中 定價二十五錢 送料二錢 六ケ月分共一圓五十七錢

日本普文大學出版部 東京下谷上野櫻木町三九 振替東京一一〇四四番 書店賣切の節は直接左へ注文を乞ふ

判任文官講義

短期 自宅 獨學で必ず判任官

獨學者諸君!諸君にとつて最も早い成功の道は、先づ判任官になることである。本講義は、斷然新しい敎授法と、頗る安い學費で而も仕事の傍ら僅か一年以內の獨學で必ず、普通文官・裁判所書記・警部・警部補・看守長・森林主事・稅關監吏・遞信鐵道官吏等各種判任文官になれる樣な組織になつてゐる。諸君は卽刻本講義に學び先づ判任官になられよ。

講義見本(菊十頁)進呈

先づ見本を見よ!!ハガキで申込次第急呈す

東京市下谷區上野櫻木町一二 日本普文大學出版部

最後의勝利는效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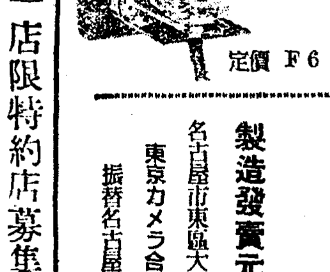
四世家傳 神香膏

定價 五錢、十錢、二十錢、三十錢

發賣元 江景邑黃金町四一 調經液 神香膏 本舖 勉堂商會 振替京城一七一八五番

特約店代理店募集 實物見本無代進呈

참으로잘박히는東京カメラ



◎暗室不用 ベスト判(三三號ナショナル號) F6.8 三枚レンズ 自動シャッター

◎レンズ가 발금으로 달여나는汽車도 自働車도 손에가진대로 잘 박힙니다

◎絶對 保證付販賣임으로 不合時는 곳返金하여 드림

定價 F6.8三枚レンズ付A型 7圓50錢 B型6圓

一邑一店限特約店募集

製造發賣元 名古屋市東區大津町 東京カメラ合名會社 振替名古屋二〇七番

特約店의一部 晋州邑 安洞商會 / 安州邑 正直屋 / 漁大津港 唯一商會 / 報恩邑 和昌商店 / 江陵邑 全應奭商店 / 天安邑 玄錫進商店 / 羅南邑 東野文華堂 / 沙里院 安正商會 / 金堤邑 金龍燮商店 / 載寧邑 永昌商店

小兒良藥 樋屋奇應丸 (하야기응환)

愛兒를하야 母性의苦心에應報된 하늘이주신育兒名藥

救急에 경련、기절、허기其他밧못의急病과容態의急變에

治病에 간기、보채고、열난때、위장장해、젖두정、록변、소화불량、식상、마마、홍진

保健에 밤에울고、하독、안색납부고여윈데、기타선천적으로약한애

定價 二十錢부터 十圓까지

無代進呈 育兒의友 朝鮮日報名記入申込

本家 大阪天滿 樋屋合資會社

10—K—2

災地咸安地方엔 豫想以外의豐兆

名産인참외수박도大豐으로

每市二千餘貫을産出

【咸安】 양년을두고상당히대풍면망의허외세상을 어지럽게한 그 전율할수산(水神)의 작난그야말로글자그대로 의참상이엿슴은기억이새롭거니와 그러나다행히함안지방은 천후의순조의우량이적당하여 재방농작물은 십여년래에보지못할만치 순조로장성하여 지금까지에는 대풍조의현상을나타내고잇서 일반농민은 수삼년래에처음보는 천후(天候)의순조라하야 기뻐을마지안는다고하며 도내명산이함안백사(咸安白沙)참외(眞瓜)정암 용성 수박(鼎岩、龍城 西瓜)등은예년이상의 대풍작으로매시(每市)이천관(二千貫)이상을 산출하게되리라 한다

上流地方豪雨로 鴨綠江刻刻增水

對岸安東엔家屋浸水

【新義州】 삼사일을계속하야 나리는 오후로압록강상류가하천은 증수되여 강도선창은 두절되며 하류신의주부근에도 탁류가범람하야 일대장관을일우엇는데 이십일오전열시 신의주강안의증수는십오척오촌에달하고 대안안동현강안부근에는 침수가옥도 상당이잇는 모양인데 물론차츰증가되는중인바 이제다시호우가게속된다면 큰홍수를보게되리라하야 이십일오전안동현측에서는성공서(省公署)에서 방수에관한회의를개최하얏다한다

博川蘆業組合 明春에는實現

漁組도同時昇格

【博川】 평북박천군은 타지방에비하야 모든시설이 떠러지중에 더욱 산업방면에우심함을 유감으로 일반은생각하든바 금번 평북도당국과 군당국에서는 제일 一동군덕안면(德安面)에유일의산품인 로초(蘆草)를통제하야 제단산업조합(製筵産業組合)을 설립키로계획하며 또는동군

暴行常習稅關吏 又復密輸者亂刺

例의세파드를시켜咬傷까지

被害者는生命이危篤

【新義州】 지난이십일오전네시반경 안동세관철교감시소부근에서는 세관리십오륙명이 맹견세파一드를시켜 조선인을 중상케한 대불상사가 또 발생하얏다 즉 안동현남삼조통(南三條通)에거주하는 김명수(金明秀)(二〇)는 다른동무이십명과가티 안동세관감시소부근을 통과코저하다가세관리에게발각되여 남소조통부근으로쫏겨오든중 세관리는 십오륙명이 일단이되여 맹견세파一드를 대리고 이를 추격하야 전긔장소에이르자 김명수는 몸에 띄고잇는 은전부를 세관리에게 내어밧칠에 불구하고 전신이피뭉치가되도록 구타를당하얏스며그 동무박명화(朴明華)는 바른편갈빗대를 칼에찔리고 바른편빨과 바른편손에도칼로마저 인사불성이되얏는데 즉시부근 성전병원(成田病院)으로 메여다가응급치료를하는중이나 매우중태라고한다

本報支局後援 鄭女史獨唱會

盛況裡에終了

【元山】 원산악우회(元山樂友會)주최와 본보원산지국후원의 정훈모녀사독창대회(鄭勳謨女史獨唱大會)는 예정과가티지난십구일 오후팔시반부터 원산관에서개최되엿는데 입장자는 정각전부터 물밀듯모여들러 입추의여지가업슴만큼 대만원을일우워섯다 먼저주최자측에서 간단한개회사가 잇슨후 정훈모녀사가우리의가튼 대박수속에 등단하야 그우아하고 명랑한 고흔목소래로 하야 동자국인 전지창조등 다섯중우을노래한뒤 이십여명으로된 원산녀성합창단이 배우에서라는노래를불러 대갈채를바덧스며 이어정녀사의 노래가계속되여 만장의 박수갈채를바덧는데 동십시반에 성황리에 동독창회는끗을마첫다고한다

許白鍊氏畵會

廿七日木浦에서

【木浦】 유지다수의후원으로의재 허백련(毅齋 許白鍊)씨의화회(畵會)를 오는이십칠일정오부터 오후오시까지 목포공회당에서개최한다는데 화백허백련씨는 조선이나호남전재화가로전남진도(珍島)의출생으로 일즉어릴때부터 서화에대하야 숙부의화가와는달리취조가고아심원한반아니라 여욱화도(畵道)의신묘를연구하기위하야 일본내지에건너가서 당대에일홈이 놉흔모모화백들과교유(交遊)하며 흥호동호방면에까지건너가서 일본비원조사가의 서화도련구하야 일심정려한결과 오늘에 대가를 자성하엿다한다 이번다시일본내지를 려방하려고 목포에와서 장시두류하는 긔회를리용하야 유지제씨들이 동씨의작품을널리소개하기위하야 화회를개최함이라는바 일반인사는 만히찬동하기를희망한다고한다

多年紛爭中이든 將峴校問題解決

下村住民의讓步로

【城津】 성진군학성면장현동(城津郡鶴城面將峴洞)에서는 학교위치변경문제로 상하촌이대치되여 이래사년동안이나 분규를거듭하여오다가 지난십삼일에 동민전체대회를열고 상하촌분쟁의해결을도모한결과 하촌에서 양보하야 학교를상촌현위치에그냥두기로협정하엿다는바 이제탐문한바에의하면 그전말은다음과가다고한다

문제의 사립장현학교(私立將峴學校)는 거금사십년전 명치사십일년 칠월에 고김효렴부(故金孝廉婦)가 희사한 천원과 해동유지의 긔부금천원 합이천원을기금으로하야 창립된 융화(隆化)학교의 후신인바 금년까지졸업회수십팔회에 일백사십칠명의졸업생을 내인군내사립학교중 가장 오랜력사를가진학교이라한다 그런데 경영방법에잇서서 기본금이천원을 두푼리자로 동민에게 대부하야 년이회로 사백원이란 리자를징수하고 수업료기타로써 경상비를 지출하여오든중 근년에와서는 대부금리자중수가 여의치못할뿐안이라 협착한교사이나마 그도퇴락되여 이백여명의 아동을 수용하기에위험천만임으로 학교당국자는 더욱 고민하고 잇든중 고박봉락(故朴鳳洛)씨외수명의 청년들이 궐기하야 운동사구건물을 매수하는일방 건축기부금을 모집하야소화칠년 삼월에 현기지에건평칠십륙평의 신교사건축공사를 기공하엿는데 이에소위 하촌사개부락인 향교촌、소동、점촌、덕거리에서는 단연반대하고하촌 중앙지에 의전하기로 적극운동중동년오월 십일일에는 우차수십대를 동원식혀가지고 상촌에가서 공사중의 학교를파괴운반하려고 덤비는것을 상촌에서는강경하게 저항하야일시는 시세가대단 험악하게 되엿다고한다 현기지가 물론장현동의 중앙이요 또상상년간이나 유서깁흔곳인데이곳을반대하고 자기들부락 근처로 이전하려고 한은아전인수(我田引水)격이라고 하야 상촌에서는 극력 반대 함으로 분규는 지구전으로 드러 가고 학교건축공사는 의외로 속히준공되엿스나 경영난은 일부입심각하여짐으로 장래가 우려되든 이때에 상하촌이 분규이후사년만에 무조건 화평해결를 짓게되자 오는칠월이십일 제이긔결산긔에 하촌으로부터 그간적체되엿든 대부금리자 사백여원이 납부되게된것은 학교장래를 위하야 심히 깁버하는바이라고 한다

碧潼에電燈架設

【碧潼】 평북벽동(碧潼)읍에는전등이아즉시설되지안아 실로그불편함이만엇든바 금번평양서선전긔회사(西鮮電氣會社)로부터 전등을시설하기로 일단계약까지완료되여 불일내로시설공사에 착수하리라한다

鐵道線工事延長을 要路當局에陳情

襄陽邑有志로부터

【襄陽】 군민전반이하로가리고대하는동해안선철도(東海岸線鐵道)가금번재삼긔공사 실지측량에도 양양읍까지는 변장이되지못하고 토성면사진(土城面沙津)까지결정하고 금번내로 공사에 착수하리라는바양양읍을중심한일반유지들은동철도선에대한 토목공사만이라도 양양읍까지착수하야 불원한장래에 개통케된다면 린제등(麟蹄)군홍천(洪川)양양간서로개통(西路開通)과동시에 일반산업에대하야 비약적발전이되겟다하야 금번양양까지 동철도선공사를착수하여달라고 총독부에진정하엿다한다

黃金의甘雨로 牙山地方解渴

【牙山】 충남아산지방에도 례년에보지못하든 한발로 고원지대는 초목이벗도록、토색을면이고 겨우심은것도 고사상태로 일반은불안에잇기고잇든다 긔보한바어니와 지난이십일밤부터 나리는비는 흡족지는못하나 해갈은되엿는데 이십일일까지도 계속강우중에잇서 일반농가에서는 깁버하기 마지아니하며 모내기에분주하다고한다

全朝鮮個人庭球 長湍에서開催

【長湍】 장단정구구락부(長湍庭球俱樂部)에서는 변중행사로본보장단지국후원하에서 제이회 전조선개인정구대회(第二回全朝鮮個人庭球大會)를오는 팔월십일일에 개최한다는바 주최자측에서는 준비에 분망중이라는데 대회규정은다음과가다

時日 八月十一日午前十時 (雨天順延)
場所 長湍庭球俱樂部코一트
申込期日 八月十日午後四時까지
參加金 一組五十錢式
賞品 優勝組 優勝旗 旅費三十圓及副賞 二等組 旅費十圓及副賞

三日間關食한老人 除草타突然昏倒

農村饑饉이나은慘劇

【北鎭】 평북의작년흉작으로극도로 피폐되는농촌비극일막一평북 운산군위연면풍상동(雲山郡委延面豊上洞) 백홍룡(白興龍)(六〇)이란노인은 동리에서도 극히구차한소작농인데 달린식구가팔명의 다수로 작년흉작의여파로 말미암아 춘경긔도전에 농량이절핍되여 이래근근연명하든중 맛츰내 지난십오일부터 연사흘동안을먹지못하게되엿다한다 그러나 농사는 지어야하겟다고 사흘굶은공복으로 십칠일오후세시 밧헤나가 기음을매다가 칠월볏양아래 드듸여혼도되여 일시생사의 분기선에 잇게되엿슴을 동리사람들이발견하고 곳응급수당을가하여 간신히 생명은 구하게되엿는데 이참상을본 동리박화준(朴化俊)씨는 동정하여마지안흐어다는데 씨는당지국유림보호조합장(國有林保護組合長)의직에잇는이로 본시빈민의납세를 대납하는등 만흔적선을하엿다고한다

問題의漁組理事 入澤에六個月役

僞證과詐欺罪로

【統營】 진해만설어수산조합리사(鎭海灣鮮魚水産組合理事)로서동진해만어업권자를 망라하야자본금 일백이십만원의 주식회사를 조직하려고 활동하든 입택달치(入澤達治)리사가리왕가설어어장매매(李王家鮮魚漁場賣買)사긔사건의위증(僞證)밋사긔죄로인하야돌연검거되여 공판에회부되엿든대 동사건은 만여원의재산에 관계가잇고또는 사회적으로 닷치는영향이 중대하므로 진해만 일대의어업계에 일대충동을긔하야 일반주목이 자못크게되엿다 이제 그내용을 탐문하면 자금오년전에 리왕가소유진해만어장을 당시 매수자 통영읍대화정 고김종원(故金鍾元)과매매계약체결에 제하야 동어장대금의 변부상환증서를 경성공증소에서 작성할때에 동련대채무자에 통영읍도천리 박성오(朴性午)외일인을 위조 출두시겨 공정증서를 작성하엿든바 동위조증서가 문제되여 동채권자김순곤(金舜坤)의 일이과 전긔박성오와의 토지강제집행이의소송(土地强制執行異議訴訟)사건에전긔입택리사가 경성공증소에 박성오자신이 출두하얏다는 위증을한것이 전긔박성오의 고소로인하야 발각되여 당지경찰서와 검사국의 손을것쳐 지난십팔일에통영지방법원 공판에 회부된것인대 동입택리사는 위증사건을명백하게 자백치안으나 여러가지증거가 확연하다하야 륙개월징역에 이개년간 집행유예판결을밧엇는데 검사는 불복공소하리라한다

地方人事

▲秋本正近氏(襄陽郡內務主任)新任人事次十九日本報襄陽分局來訪
▲末田敏雄氏(博川公立普通學校長)江界公普校轉任人事次本社博川支局來訪
▲朴衡鎭氏(全羅北道産業技手)新任人事次去十八日本報全州支局來訪
▲張忠孫氏(全北道産業技手)鎭安郡廳轉動人事次去十八日本報全州支局來訪

呻吟는兄弟까지絶命 全家族畢竟全滅

家族中三名은數日前에死亡

南川버섯中毒事件後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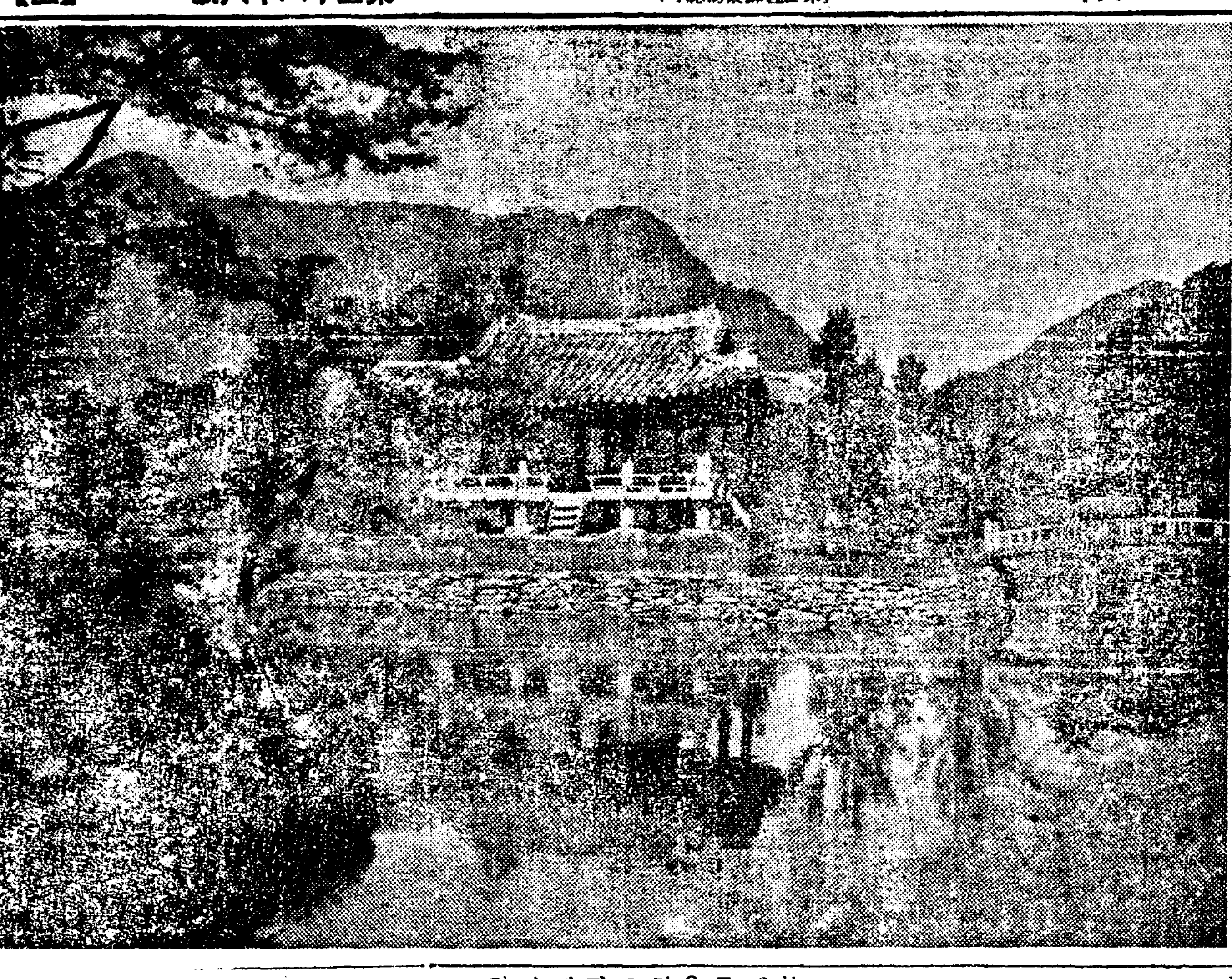
【南川】 평산군서봉면월봉리이백십오번지 민영수(閔泳壽)의 집에서는 이름모를버섯을먹고 중독되어 삼명이 참사하엿다 함은 긔보한바어니와 신음(呻吟)하고잇든 전긔명수의 동생영언(泳彦)(三二)과영채는 십구일사리원 도립의원(沙里院道立醫院)에입원하고 응급치료를가하엿스나 효험을엇지못하고드듸여 전멸되여전가족이 전멸한참상이라고한다

泗川地方에乖候

【泗川】 경남사천지방은 지난륙월중순에는 때때로 나리는알마진우량으로 말미암아 례년에보지못할만큼이앙(移秧)성적이 량호하엿스며 벼의 성육도 비상이우수하여 대풍작을예상케되엿든바 칠월에드러서는 긔후부조로서근십오일간이나음천이계속되여농작물에피해가만타고하며수도에는각종충해가격심하야 일반농민은자못우려중이라한다

金海庭球大會 雨天으로延期

【金海】 경남김해읍내본보김해지국주최로남조선정구대회를 작이십일일에 개최한다함은긔보한바이나불행이도 대회당일은 우천(雨天)인관계상 부득이연긔하엿다한다



◇…凉風가득한午後의六勝亭

流浪의美女를놋코 異國人間에爭奪戰

元山街頭의一幕劇

【元山】 지난이십일오후여섯시경 원산상동 중외인쇄소압 중국인 호떡장사 왕홍걸(王鴻吉)의 집에서는 나하고 살자거니 안살것다 거니 하는 남자의 위협소리와 함께 녀자의연약한목소리가 교차되여 일긴싸움하는 장면을열출하야 행인의발걸을멈추게한사건이잇섯다

이제 이사건의내용을 들어보면 주인공인황해도곡산군운이면 삼각동(谷山郡雲伊面三角洞)에본적을둔 김순덕(金順德)이가 정처업시류랑의나그내가되여 북조선일대와 간도일대를거처 지난십구일 원산부신흥동 김만순(金萬順)의집에 일으리 하로밤지기를 청하는동시에 자긔의 가엽슨신세를말하고 착한자리가잇스면 시집가게다는 말을 하얏든바 이에김만순은 자긔매부되는동청리오병구(吳炳九)와의론한결과 전긔중국인 호떡장사에게 소개한것인데 이소식을 들은신고산(新高山)사는김학구(金鶴九)(假名)란는사람이 오랜동안의 호래비생활을 청산코저 전긔호떡집에가서 표랑의미녀 김순덕을 자긔와가티살자거니하며 한녀자를두고 이국인두사람이 서로제처를 삼겟다고언쟁이잇섯든것이라는바 전긔순덕은 십여년간 방랑생활을하든안 거츤세상의풍파를 격그며조선인에대한 증오를가젓슴인지절대로조선사람과는 살수업고중국인과마살겟다고한다고하야 일반의화제를제공하고잇다고한다

晋州

南朝鮮蹴球大會

▲時日 七月二十七、八兩日
▲場所 晋州高普球場
◇主催 在東京晋高同窓會
◇後援 朝鮮日報社晋州支局

신발견된 림질·매독을

속히고치는제일조흔약
(조선총독부출원허가제)

본자가 절대로 보증하는、림질매독치료약은
제국대학의과대학병원
영미독불의파대학병원
에서최고치료약으로써찬양사용하며、또

內務大臣을會長으로하고、醫藥學界의 最高權威者十六名을 委員으로하야、愼重審議한後、그品位를定하야日本藥局方에收載하고그우에

내무성위생시험소보증봉함

이잇는治淋劑六種을主藥으로하야、何等의副作用이업도록 配劑한許可濟의公認治淋劑이다

따라서 그약효의 절대함은 다년 림상실험의결과 의약학계에서 철저적전치약으로 추장을밧게되엿스며『이이상가는 약은업다』고하는 절대적신령을가지고 정제한것이다 그리고 약효에대하여서도 무효한때에는 돈을도로드릴것이니 별별치료를다하야 보아도효과가 업는환자는 하로밧삐이약으로전치하십시오

藥의有効無効는 小便을보면判定된다

림질환자는 여러가지료법에 미혹되야서는안된다。제일주의할것은오좀이다。보통우리가림질을압어낼여면、소변을컵에다바더본즉、실낫가튼것이나 몬지가튼것이 떠다가려안젓다한다。즉 그것이 림사(淋絲)다。아무리 약을먹고 주사를할지라도、컵에오좀을바더보와、실낫가튼림사(淋絲)가곳처어지지안흐면효험업는것이다。그럼으로소변을 보와림사(淋絲)가 떠러진약을 먹지안흐면 안된다。약이효력잇스면 림사(淋絲)도적어지고、탁농도업서지며、고름도 잡히여전쾌의 목적을달할수가잇다。

梅毒

本社創製의梅毒藥은政府制定日本藥局方驅梅劑三種과 皇漢梅毒藥數種을主藥으로 하야副作用이絶對업는出願 許可濟公認驅梅劑로서

초기의감창、가래톳의치료는물론、제이기전신매독、잠복매독、유선매독、매독성료마지스등도본제의내복으로、곳배독작용(排毒作用)을하며、매독으로 일어나는 률패증과 국부와전신증상이 점점히반하여저서치병의 목적을달할수잇다。무서운 매독을 자손에게 유전치안토록、하로라도빨리본사의구매제(驅梅劑)를복용하야고치시라。

림질 별제(팔일분)팔원 약특제(팔일분)사원
매독 별제(십칠일분)팔원 약특제(십칠일분)륙원

電話及振替口座新設
電話本局 二三六三番
振替京城 二三一五六番
京城郵便局前 有田ドラッグ

책임제약임으로 다른약점에는 팔게하지안슴니다 좌의 有田도락구전매소에서 사십시요

有田도락구直賣所鮮滿所在地

京城 郵便本局前 有田도락구
黃金町四 有田도락구
龍山鍊兵町 有田도락구
平壤本局前 有田도락구
釜山幸町一 有田도락구
仁川宮町二 有田도락구
大田榮町一 有田도락구
群山驛前通 有田도락구
全州高砂町 有田도락구
光州本町三 有田도락구
木浦榮町二 有田도락구
大邱弓町 有田도락구
馬山京町三 有田도락구
麗水港 有田도락구
浦項本町 有田도락구
兼二浦本町 有田도락구
鎭南浦碑石里 有田도락구
海州南本町 有田도락구
新義州榮町 有田도락구
元山本町三 有田도락구
咸興本町二 有田도락구
羅南生駒町 有田도락구
安東縣四番三 有田도락구
奉天驛前 有田도락구
撫順東六條 有田도락구
開原新市街 有田도락구
四平街會盛路 有田도락구
新京東一條通 有田도락구
哈爾賓傅家甸 有田도락구
大連越後町 有田도락구

滿鮮發賣元 京城郵便局前 有田도락구

酷暑! 무서운流行病菌의活躍季

입으로드는 流行病을豫防!

消化·殺菌 救急·三大藥効 兼備한萬人必備의護身藥!

效力本位 懷中藥

寶丹 (보단)

寶丹은다른一時的口中淸凉劑와는달너서 暑熱에먹으면元氣를倍加하며、常服하면 獨特한殺菌力이、豫防藥으로써役割하고 또不時의 急病에잇서선救急護身藥도됩니다。

酷暑! 惡疫流行! 家庭에、旅行에、바다로 山으로、寶丹의活用을이지마시라!

寶丹은東京各大學山岳部員登山時에携帶한結果 그效能이顯著하야『登山者必携藥』으로서 推奨을밧고잇슴니다

이럴때엔 곳寶丹을…

▲旅行外出에寶丹 ▲船車멀미에寶丹 ▲元氣돗는데寶丹 ▲惡疫流行에寶丹 ▲消化消毒에寶丹 ▲頭痛眩暈에寶丹
▲過飮過食에寶丹 ▲疲勞倦怠에寶丹 ▲腹痛吐瀉에寶丹 ▲時候不調에寶丹 ▲氣分낫분때에寶丹 ▲登山海水浴에寶丹

定價 金二十錢 金三十錢 金五十錢 金一圓 金二圓 金五圓

○全國藥店에잇合

守妙本舖 守田治兵衛
本店 東京市下谷區池之端仲町 支店 大阪市南區長堀橋筋二丁目

히다

마른옴、무좀、음부습진、롱가증等 더위와함께蔓延되는皮膚病의治療는速한것이得策! 곳히다를試用하시라!

本劑는 揮發키시운 水製劑와달너、크림비슷하여藥効는持續的이어서조곰한刺戟도업시皮下에잘吸收되여安全하게 皮膚病의苦痛을解消식힘니다。

一步進步된皮膚病藥

主効 버짐、무좀、음부습진、熱疹、땀띠、抱瘡、옴、단독、백납、쇠버짐、부름、쓰린데、땀띠、面刀에 상한데、抱瘡

定價 二十錢 三十錢 五十錢 一圓

寶丹本舖 守田治兵衛 東京市下谷區池之端仲町 振替東京二九八五番

全國著名藥店에잇合

京畿道서 劃期的 産米改良計畫

諸般施設과現代科學을利用

米品質改良을徹底

近年朝鮮米의 品質이 漸次로向上되야 日本內地方面에서도 好評을博하고잇는터이나 아직日本內地米에 比較하면 一石에對한格差가 一圓四、五十錢에 達하는此際京畿道에서는 他道에率先하야 이번에産米改良의 徹底를期하고 計畫中이라는데 그改良의要旨는 다음과갓다

一、正租乾燥調製改良에잇서 予先收穫期에 溫突의乾燥場設置及稻架乾燥勵行 礎臺打穀及正租의適乾燥獎勵、改良調製農具의普及、貯藏米及搬出米의包裝改善

二、中小農家에對한玄米調製의獎勵

三、採種畓의更新及栽培管理의改善

等諸般施設의擴充에依하야 今後産米改良을完成할計畫이라한다

國有林野實測 九十萬町步

아직殘餘가四百萬町步로

今後六個年間에完了

昭和九年부터 八個年計畫으로實施中인國有林野實測은 十年上半期에全南濟州島、慶北、江原、咸南永興、平南成川、咸北茂山의七個所에서施行하얏는데 上期調査面積은約三十萬町步에 達하야 昨年度分을合計하면 九十萬町步나되는바 아직殘餘四百萬町步를 六個年間에完了할計畫인데 右調査가完了되는때는 國有財産約五百萬圓의增額을보게될터이다

液體燃料國策

商工省案成案

【電通東京電話】商工省에서는日本液體燃料國策樹立에 關하야種種研究中이던바 大體의 成案을어덧스므로 十二日省議를열고審議한結果 드듸어昭和十一年度豫算編成에當하야 必要經費를要求하기로되엇다 即當局이企圖하는燃料國策의 骨子는大別하야內外資原의開發及代用燃料의 研究의二項에分하얏다

北中開發資金

滿鐵社債를發行

【大連十四日發聯合】마츰내北中의 經濟開發에進出하게된滿鐵은 今回入田副總裁가 新京에赴하야 關東軍首腦와協議한結果滿中經濟開發事業資金은 四圍의事情에鑑하야 增資에依치안코社債發行限度擴張의 方針을取하기로 諒解가 成立되엇다 그리고滿鐵社債發行限度는 現行法에依하면拂込株金額의 二倍로 할수잇스나資本總額八億圓을 超滿할수는업다 따라이를勅令에 依하야總資本金額八億圓에 社內保留金二億圓을加하야 十億圓限度로곳치려하는模樣이다 但滿鐵의現狀과北滿實情에鑑하야 將來右外更히擴張의道를 講究치안흐면 아직不足되리라고한다

咸南家內工産額

昨年六百八十五萬圓

比前年三十九萬圓增

【咸興】昨年度咸南에서 總余히家內工業으로 生産한總額은 六百八十五萬一千十二圓의 巨額인데 그中日本內地人의 生産額은九十五萬八千六百十四 朝鮮人의손으로生産한額은 五百八十萬七千九百八十八圓 外國人의生産額은三萬四千四百十圓으로 前年度에比하면 三十九萬五百六十九圓의增加를 비이고잇는바 産品別로보면 다음과갓다

紡績	一、二九〇、九七九圓
金灰	二五六、一六九
機械	二三五、五〇〇
窯業	一九一、一七一
食工業	五七三、〇三九
食料品	一、三六八、六三二
木製品	六五一、七四〇
其他	一、三一九、七七三
計	六、八五一、〇一二

咸南베치作況好績

咸南에서는 綠肥로서『헤아리베치』를平地帶各部에 昭和六年부터奬勵하여 오는바 現在의栽培面積은 八百八十餘町以外에達하야그成績이 良好한데、特히安邊郡은成績이 자못良好하야 反當五百貫의實收가잇섯다고한다 그리고 養蠶 小作組合 에서는 昭和八年 組合創立以來今年까지 三個年을經過하는동안에組合數가 九十八組合、人員四千九十九名 桑田五百八十餘町步 에達하는데 그自給肥料로 夏作으로 靑치大豆、冬作으로『베치』를間作하는바 靑치大豆段當二百貫、베치段當三百貫으로 結局大豆粕五枚分에相當하다고한다

苹果移出前期 運賃을割引

總督府에서規則發布

近年朝鮮産苹果가 日本內地로移出되는量이 年年增加하는데 鑑하야 總督府에서는 十八日付總督府 告示 第四百一〇號로日本內地向 苹果運賃割引規則을左와如히 發布하야 苹果移出을勵長하게되엇다한다

一、品名=苹果

二、期限=自七月十六日 至翌年四月十五日

三、發驛=大邱、金郊、南川、瑞興、沙里院、沈村、黃州、黑橋、中和、平壤、鎭川、兼二浦、眞池洞、鎭南浦、月井里、龍王寺、安邊、元山、德源、咸興

四、着驛=梅田、大阪、梅小路、丹波口、小路商、神戶、兵庫、姬路、岡山、尾道、吳、廣島、己斐、下關、豊岡、鳥取、米子、松江、平松、直方、八幡、吉塚、久留米、大牟田、熊本、鹿兒島、長崎、佐世保、佐賀、別府、大分、安崎、若松、

五、賃率=大邱發 一키로 二圓八十二錢、金郊以遠發 同 六圓卅錢 月井里以遠發 同 六圓六十三錢

六、普通賃率에依하야 通算하는데 五千五百越以上移送者에게는 既收運賃과元運賃과의差額을割戾함

京畿自作農設定

二百五十戶決定

京畿道의 十年度自作農設定은戶數二百五十戶 貸付資金十六萬五千圓으로 決定되엇다는바 昭和七年以來의 設定戶數는(戶)

昭和七年	二六七
同八年	二四七
同九年	二九〇
計	八〇四

인데 十年度二百五十戶를 合하면 累計千五十四戶에 達하게된다 그리고 十年度 自作農地는 다음과갓다

	戶數	一戶當貸付金	計
高陽	七	六、六五	四、六五五
廣州	一六	六、六〇	一〇、五六〇
楊州	一六	六、六〇	一〇、五六〇
漣川	一三	六、五〇	八、四五〇
抱川	一二	六、五〇	七、八〇〇
加平	七	六、五〇	四、五五〇
楊平	一二	六、五五	七、八六〇
驪州	一一	六、五〇	七、一五〇
利川	一二	六六五	七、九八〇
龍仁	一三	六六五	八、六四五
安城	一三	六六五	八、六四五
振威	一二	六六五	七、九八〇
水原	二一	六六五	一三、九六五
始興	一〇	六七〇	六、七〇〇
富川	一四	六七〇	九、三八〇
金浦	一一	六六〇	七、二六〇
江華	一四	六五〇	九、一〇〇
坡州	一二	六五〇	七、八〇〇
長湍	一二	六六五	七、九八〇
開豐	一二	六六五	七、九八〇
計	二五〇	六六〇	一六五、〇〇〇

【註】高陽郡은漢芝、纛島、崇仁、恩平、龍江、延禧、水原郡은水原邑、始興郡은永登浦邑及北面을除外함

會社로하야곰 政府의監督下에代理業務를代行케할模樣이며 그 據下數量은 大體五十萬石가량이라한다

家畜防疫爲해 日滿間檢疫協定

朝鮮의馬産에도好影響

調印은今秋十月頃

朝鮮의馬産에 一大寄與를하는 鼻疽病、炭疽病等의惡疫은 거의接壤의滿洲로부터 潛入傳播되야軍馬를비롯하야 地方馬、一般家畜에多大한 影響을미치게하는데鑑하야 朝鮮軍獸醫部에서는 此等惡疫의 撲滅을期하고저前부터陸軍中央部及關東軍을通하고 滿洲國當局에 對策考究를要望하고잇는바 滿洲國民政部에서그要望을聽取하야 具體化하고잇다는데 今秋十月頃에 日滿國境檢疫協定의 正式調印을行할豫定이라한다 同協定은 日滿兩國間의 畜産界에서는 右協定으로朝鮮滿洲兩當局이 國境通過의牛馬及家畜의 檢疫을主眼하는것으로 細則에잇서서 惡疫의豫防及撲滅對策에相互連絡을取하며 또朝鮮滿洲兩當事者의 利害關係規定、例컨대朝鮮에서 滿洲로부터馬匹을購入하야 國境通過時에 檢疫所에서 鼻疽病馬로判明되야 撲殺할境遇에 買主에만 損害를입게아니하고 賣主에對한 損害賠償을規定하는等 자못詳細하게 右協定實施하야 漸次國境檢疫所도 增設할豫定이라는데 朝鮮의産馬界의安全保障은勿論一般畜産界에 福音이되리라고期待되는터이다

滿洲國林野法 今月末에發布

팔푸會社도認可

【電通新京十九日發】滿洲國林野法은 드듸어今月末決定發布되기로되엇다 이와同時에오래동안懸案이든滿洲國內의팔푸四會社에도認可指令을發하기로되엇다 그條件은아직決定을보지못하얏스나 팔푸市場의根幹이되는 伐採方法은今後五年을限으로暫定的으로팔푸

京畿道內에서 黑炭增産을計畫

長期製炭講習開催

京畿道의木炭年産額은 約三百萬貫、그價額四十萬圓에達하야 木炭의生産量은 朝鮮第一을자랑하는盛況이다 그리고 昭和八年木炭檢査規則發布以來 品質의向上은特히顯著할뿐아니라 販賣統制의結果 京城市場의木炭市勢는實로同道檢查木炭價格을 標準으로한것等好評을博하고 잇는데 同道産木炭의大部分은 白炭으로收炭率이多하고 使用上便利한黑炭은 總生産量의一割內外에 不過하는狀態에 잇슴으로 右는林制의 增進과 需要의增加에 鑑하야 자못 遺憾되는바이므로 今年度는 特히 島根縣各縣으로부터 實地經驗者를 招聘하야 加平龍仁 兩郡管內에서 黑炭燒製長期講習會를 開催하게되야 管下各地元製炭組合員及製炭指導者를모아 八月三日부터 九十日間講習會를 開催할計畫으로 目下準備中이라는데 今後의優良黑炭의增産에多大한期待가되다고한다

揚荷場崩壞로 急造改築要望

兼二浦商民焦燥

【兼二浦】兼二浦港은 其貿易額이 海州龍塘浦港의貿易額(八年貿易)七百三十九萬五百七十四圓에比하야 一千萬圓以上貿易額을더가진兼二浦港은 文字그대로黃海道의首位를占하는 一大貿易港인데 現在의 同港의 荷揚場은 大部分이崩壞되여 其改築擴張의實現을兼二浦商工民一般은 鶴首苦待中에잇는데 道當局에서는 今年度豫算에 總工費 二萬七千餘圓을計上하엿스나 尙今것工事에着手치안허 秋期貿易期를 압둔兼二浦商民一同은 적지안흔焦燥속에싸여잇다한다

鑛業權設定・移動

◇鑛業權移轉

登錄番號	鑛區所在地	登錄月日	鑛業權者住所氏名
九五六三	忠北陰城郡笙極面	七月四日	京城府通洞 代表者 朴源琳、同光化門通 李順泰
二二四一	忠南瑞山郡泰安面	同	瑞山郡泰安面 代表者 金鍾協、同南門里 羅昌榮
九六九二	黃海海州郡月谷面 壯谷面代東面	同	東京市麴町區 保東鑛山株式會社
九七一四	同月谷面代東面	同	同
一八六四	咸南安邊郡安道面	同	大邱府南山町 代表者 張吉相、京城府壽井洞 徐丙璨
一〇六六五	同長津郡內面	同	咸州郡上岐川面 代表者 金榮遂、同 金得熺
七七九〇	咸北富寧郡青岩面	同	清津府大和町 岩田忠弍
五六九〇	江原金化郡遠南面	同五日	京城府櫻井町 布留川始作
一一七三一	同寧越郡水周面	同	廣州郡大旺面
八八一九	京畿楊平郡葛山面 江上面 驪州郡介軍面 金沙面	同六日	京城府苑洞 代表者 李鍾文、同鐘路 李範圭、同瑞麟洞 尹明鉉
一〇三五五	忠南扶餘郡南面場岩面	同	清州郡芙蓉面 金元福
七四四九	黃海載寧郡上聖面	同	大阪市東區 住友合資會社
八〇〇二	同	同	同
一一六四二	同平山郡安城面	同	同
一一六二一	平北寧川郡江西面	同	平壤府鏡齋里 代表者 玄成文、博川郡博川面 韓蓮珠
八四六一	江原高城郡西面	同	博川郡博川面 卓雲演
八五四三	同平昌郡平昌面	同	東京市芝區 代表者 岩佐嘉榮、大阪府豐中町 大澤道之助
七七八八	咸南高原郡山谷面	同	平昌郡平昌面 代表者 柳宗烈、同 李國榮
七六四一	忠北沃川郡青城面	同八日	龍岡郡瑞和面 代表者 金秉燦、同 張正熙
八四三三	平南大同郡林原面 西川面	同	京城府南米倉町 西山吉兵衛、同竹沘里 文金滷
八三三六	平北熙城郡棄峴面	同	同大和町 大田敏男、平壤府慶上里 崔致民
九三三四	咸南永興郡長興面	同	福岡縣若松市 代表者 小路藏彦、大分縣別府市 山內庄三郎

鰮油肥問題

過去와現在及將來

朴炳壽

當初에一手販賣를協定할때 當業者들은 이不自然한案이나마 總督府當局을 絶對信賴하고 犧牲的精神으로서 斡旋條件에 服從하엿스나 數次合同油肥와三菱의會見과威力에못이겨 協定價格이 破棄되엿고 또한總督府에서 責任지고 十五年間年賦로서(無利息) 融資된다던 補給金까지도 虛事가되엿슨則 不得已生産者들은 前記決議와如히 鰮油肥統制販賣案을 破棄하는수밧게 他途가업게되엿다 그러나 이協定을破棄함에는 幾多의難關이잇스니 이것이 即生産者의 破棄를躊躇한 一大原因이엿다

第一은 이協定이란 總督府의直接政策으로서 實現된 事實인關係上 먼저 이를破棄하려면 總督府의政策을 根本的으로 否認하여야하겟슨則 이것이 그러케容易할수업는것

第二는 當業者內部의 統一力의 缺乏으로서 끗까지 相對方과 싸워나갈만한 實力을가지지못한것

第三은 當業者의 有數分子가 水産組合과 販賣組合으로 因하야 三菱及合同油脂와 野合하고잇는것

第四는 當業者에 日本內地人과 朝鮮人과 朝鮮人이잇는關係

以上네가지條件으로서 統制販賣案의 破棄는 한가지机上空論에 지나지안는것이다

이런困境에 陷入하야잇는 製造業者들은 어떠한方途를 取하던지 自己들은 損失을 當할수업는즉 이러한者焦를 不人情하나마 不得已羊과가티 順良無咎한直接生産者인漁民에게 轉嫁식힐수밧게업섯는것이다 俗諺에 漢江가서 뺨맞고 鍾路와서 눈흘긴다는 말과가티 三菱이나合同油脂에게서바든 損失을 漁民에게 돌리게되엿다 그手段으로서는 不得已漁民들이 잡어온鰮魚를 엄청난廉價로서 買收하야 收支가相償케만드려는것이다

1、販賣組合解體의理由와그動機

A、共販組合의自然解消와그에隨伴한異狀

本來 共販組合이 形成된 그理由는 前記論한바와가티 單純히 在來의 緣故買受者를 救濟한다는것인데 그것이 構成됨으로부터 生産者에게 二重 三重으로 無用의 負擔이加重하야 二重賣買組合廢止를 絶叫하고 잇섯스며 또爲政當局에까지 販賣組合이 ○油肥統制販賣過程에 잇서서 必要가絕無함을 力說하야解消를 主張하얏스나 在來의輸出業者이며 또한大工場主인 그들은三菱이나 合同油脂에게 本來부터 自己들이 取得하여오든利益을 빼앗겻스니 그報酬條件이 어대로던지 나오기前에는 容易히 自家의利益을爲하야 構成된 販賣組合을 廢止할氣槪는少毫도 업섯다 이것이그들로서는 無理가아니엿다 商業者로서自己의利潤을擁護할理由가업는것이다그러나 在來의緣故買收者를 救濟한다고하드래도 有害無益한機關이 그存在가危險함을 認識한 그들은 生産者들의 눈을掩하기爲하야 水産組合비슷이 融資의形式을取하게되엿스니 이것이 새로생기인 所謂前渡金이엿다 水産組合은 生産者에게 製品까지의生産費로서 融資하지마는 이前渡金은 鰮油肥製造業者인 工場主들이 自己들이生産한 油粕을 製品이 完成된 即時로 三菱이나合同油脂에서 引受치못하는關係上 그동안 製品의原料인 生鰮魚買受의 資金이 若干할일고잇는 共販組合은 流通資金을 生産者에게 融通하게되엿다 그러나이것은製品이모다檢查된다음 三菱이나合同油脂에서 油一罐에一圓五十錢式決定됨을보와서 그의三分之二 一圓쯤前渡한다고 한다 共販組合의所有로形式化하야 三菱、合同에渡與하게되고 價格도 따라 이러케되면 製品이모다 共販組合을거쳐서 나오게되어 製造業者의손에 生産品의 代金이 드러가기前에 自己들이 貸與한 金額을 任意대로 除하고잇는것이다 그뿐아니라 過去에는 製造業者에게 貸付한未拂額(即水産組合이 創設되기前의貸價)까지 幾分式을 定期的으로 生産品의 代金이 自己들의 손을거치는것을 奇貨로除하고잇는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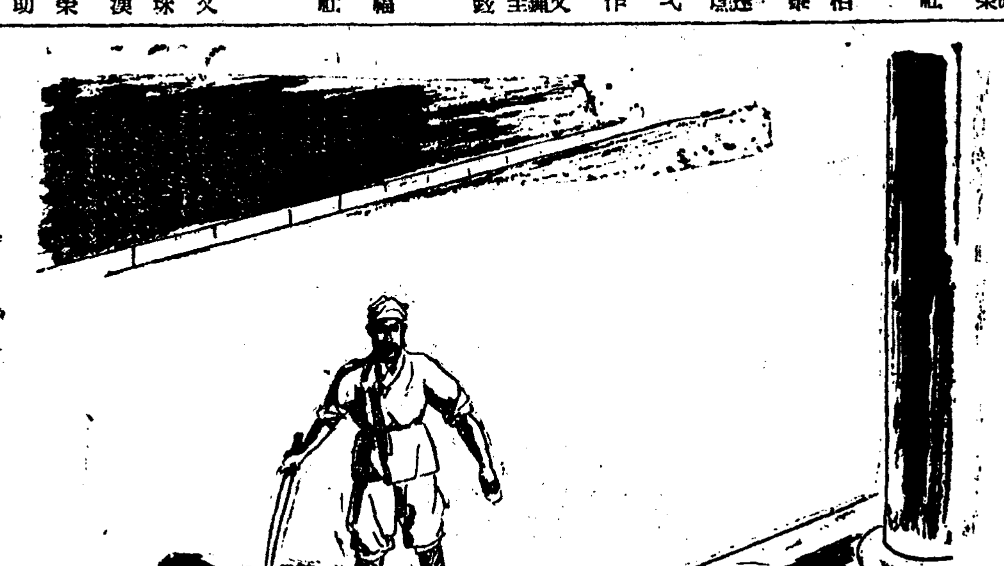
이것만보아도 緣故買受者들을 얼미나 有利하게한것인가를알수잇다 그리고 前渡金도製品이完成된即時로 주기로約束되엿는것이 名實相違가생기어그대로 實現되지안케 되엇스니 販賣組合關係者들도 良心이 잇는지라 아모하는 일업시 生産者들을 壓迫하는結合 自然의 運命이 길지못할것을自覺하엿고 따라서아모리自利의欲이充滿하지마는 壓迫의妙術이 以上더進展할수업시 閉塞하얏슬뿐더러 製造業者들의 頑强한態度로 販賣組合을더存續식힐수업슴을 看破하엿슨것이다 그리고水産組合當局이 생각컨대 製造業者들이 恒常水産組合까지 何等存在의 必要가업다하야 機會만잇스면 力論하고잇는 此際에 販賣組合을 一日이라도더存續식히다가는 그餘擊이自己들에게까지 波及될것을 豫感하고機先을制하야 販賣組合當局者들과 販賣契約하여든것이다

이것이 共販組合解消의 動機이며 또한重要한理由의하나는 過去의 買受者이든 三菱과合同油脂가今般에와서 一手買受者란 形式을 避하야 委托販賣者란 形態를 가지게된까닭이다 即三個會合을열고 過去의一手買受權을拋棄하고 昭和七年度 特別契約으로서 三菱과合同油脂는 今後委托販賣者란 形式을取하야 生産者와의關係를 結成하게되엇다

이리하야 結局은 製造業者나直接生産者들을 同情하야 過重한 負擔이나 手數料 即無用의支出을 防止하기爲함보다도 그裏面에는 前記와가튼 事實이潛在하야 販賣組合을解體하게된것이다

火賊林巨正 (81)

洪碧初 作 安碩柱 畵



【前回까지의梗槪】리장곤리창성(李長坤李昌成)이 연산주때 교리로 거제도(巨濟島)에 귀양가잇다가 가죄(加罪)나릴줄 짐작하고 경상도에서 함경도로 망명하야 함흥 고리백정의집 사위가되엇섯다 그백정처가떨거지중에 비범한이들이 둘이잇스니 하나는 그처삼촌 양주팔이요 또 하나는 그처고모의 손자 림꺽정이엇다 림꺽정이는 이소설의 주인공이니 다시말할것업고 양주팔이는 림꺽정이누의의 시아버지요 또 림꺽정이의 선생이다 그가 일직이류산객으로 묘향산에갓슬때 허암정희량(虛庵鄭希良)을 만나서역리(易理)를 배우고 구뒤에갓바치로 동소문안에 잇슬때정암조광조(靜庵趙光祖)와 교분이 자별하게 지내고 나종에 죽산 칠장에서 중이되어 승속간에 유신보살 대접을 밧다가 죽은뒤에 칠장사의 백정부처가 된 사람이다 림꺽정이가 아이때에 동소문안 갓바치집에 와잇슬때 홍문관교리인 리학년(李鶴年)의아들 리봉학이와 황해도강령(康翎)농군 박가의유복자 박유복이와 동접하야 지내는데 섭이 정분조키가 친동기들과가 틀렷섯다 리봉학이는 아이때부터 활작난을 조하하더니 마친내고금에드문명궁이되어서 을묘왜변에방어사 남치근(南致勤)진의 궁수(弓手)로 출전하야 명성이 각진에 떨치엇는데 그때 령암가수성장(假守城將) 리윤경(李潤慶)의 애호를 밧게되어 리윤경이 전라감사하야갈때 비장으로 딸하가서 화로에나서기시작하야 끄트로 림진별장까지 지내게되엇고 박유복이는 편모(偏母)를 여힌뒤에 이모부를 딸하 타향으로 돌아다니다가 고향강령에와서 그아비를 모함하야죽게한북은원수를 갑고 살인범으로 피신하야 다니는중에 덕물산장군당에서산사람으로 죽은귀신의기집노릇하는색씨와 서로만나서 가치 도망하는데 청석골 들은도적 오가의집에서 하쏘하는 도적질 인연이되어 오가와가티 도적질을하게되엇다 유복이의 재주는 소위 삐창이란것을 백발백중 잘 던지는것이엇다 박유복이가 도적이되던에 우는아이 해치기잘하는 곽오주와 장사로 유명한 길막동이와 돌팔매를 귀신가티 잘치는 배돌석이가 차례로 모혀들어서 한당이되고 나종에 꺽만코 간사한 아전퇴물 서림이란자가 와서투신하는데 입당하는처음에 평양서오는 진상봉물을 엇사리 떨어오도록 꾀를 내엇다 청석골적당이 평양봉물을 떨어다가 눈코뜰새 림꺽정이에게 한목을보내더니 그물건이 양주꺽정이집에서 들켜나서 꺽정이의 진안식구가 양주관가에 잡혀가치엇다 꺽정이는 이때마침 청석골 놀러왓다가 소식을 듯고 쪼차가서 지례죽어버리아비와동생은 간신히 엄도하고 아직옥중에잇는 처자와누의는 빼내서 다리고 청석골로 도망하얏다 림꺽정이의 처남 황천왕동이는 꺽정이 파옥할때 조력한것이 최가되고 림진별장 리봉학이는 꺽정이 도망할때 방조한것이 최가되어서 모다 망명하야 청석골로 모이게되엇고 림꺽정이가인불이 영특하고 원력이 절등하고 아이쩍에 요괴원 귀은검객에게 배운 검술이 신통한까닭에 여러사람이 괴수로 떠밧들엇다 오가 서가 두사람을 빼고 그남아지 넓곱사람이 곳림꺽정이의 칠형제패다 림꺽정이는 그선생과가치 백두산구경을 갓슬때 허항령무인지경에서 들님생가티 자란 운총이에게 장가들어서 백손이란 장남한아들까지 두엇고 리봉학이는 전주서 다리고온 기생과 가티살고 박유복이는 장군당에서 어든 안해가잇고 배돌석이는 졸개딸에게 사취장가를 들엇고 황천왕동이는 삼십여세까지 로총각으로잇다가 봉산리방의집 사위취재에 뽑혀서 총각을 면하얏섯는데 그안해의 인물이 출중하얏다 내외가진사람들이 각기 딴살림을 배치할때 길막동이가 안성처가에 잇는 안해를 다리려갓다가 안성관가에 잡힌까닭에 림꺽정이이하 여러사람이 안성가서 접전하고 파옥하고 막동이를 구해가지고 청석골로돌아와다 묘댕에서 개성류수와 황해감사에게 청석골 적굴을 소탕하라고명하야 관군이 청석골을 에워싸고 지처들어오니 림꺽정이이하 여러사람은 가솔을 낫다리고이천 광복산으로 달아낫다 광복산은 등에중의 등에라 림꺽정이가 답답하게 날을보내는중에 서울 근방과서울성안에 림꺽정이로라 자칭하는 좀도적들이만타는소문을 듯고한두놈 잡아서 본보기를 내고 겸하야 서울와서 놀다가라고 졸개하나를 다리고 광복산서 떠나와다 서울남소문안 적당의괴수 한첨지가 청석골때와 밀접한관계가잇섯슴으로 림꺽정이는 한첨지집에 와서묵엇다 림꺽정이가 본래 녀색에 범연치안흔데다가 한첨지의 왈짜아들 한온이가 조방군노릇을하야 꺽정이는 오입을시작 하얏다 서울안 일등기생으로 부터 남의집 등직이 까지 꺽정이가 아페 닥치는 대로손울대는중에 매파들다리고 실업슨말한것이 참말이되어서 산림팔 량반과부의딸을 귀밋머리풀려서 남성밋골에치가하게되고도 보잠에죽은상노아이의원수를갑는것이 고동이되어서 원계검원판서의딸을 훔처다가 동소문안에 살림하게되엇다 동소문안 원씨집이웃에 정문바든렬녀가하나사는데 그렬녀가 성질이 거세서 날마다 큰소리 잔소리에이웃이 불안하얏다 그집 단비 종하나가 상년을 배반하고 도망질할때 원씨집 등자치가 말을부추기고 원씨집 상직할미가 꾀를가르치고 또 림꺽정이가 친히 남소문안 한첨지집으로 다려다가숨겨주엇다 그렬녀가 이웃집에서 종을빼돌린줄 어림푸시짐작하고 섯불리욕설마듸하다가 끄로 큭톡히망신을하게된다

補血强壯

빗나는 健康으로

포리타민 (ポリタミン)

「포리타민」은世界醫學界에서滋養效果가가장優秀하다고證明된貴重한榮養「아미노酸」을主成分으로한獨特한補血强壯劑임으로普通의鐵劑나蛋白質의滋養劑와는다름으로服用後直時體內에吸收되야피(血)로되고살(肉)로되야迅速히衰弱한것을恢復식히며體內의精力을增强케한은貴重한榮養劑이올시다

醫學博士四四〇餘名의推薦잇는推奬報告가有합니다

醫家諸氏는左記境遇에實用합니다

貧血、病中及病後의衰弱、虛弱質、神經衰弱、肺結核、産前産後、慢性胃腸病、精力減退等

說明書는知名藥店에잇슴

液狀포리타민

一五〇瓦	一圓五拾五錢
二五〇瓦	二圓五拾錢
五〇〇瓦	四圓五拾錢

「포리타민」에는各病症에따라左記四種品이잇습니다。

腺病佝僂病에는	요-드포리타민
神經榮養에는	알젭포리타민
健胃强壯에는	기나포리타민
呼吸器病에는	구아야콜포리타민

發賣元 大阪市東區道修町 株式會社 武田長兵衛商店

製造元 大阪市東淀川區堀上町 大五製藥株式會社

朝鮮各地有名藥店에서販賣